

# 다독다감

2월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새로배움 ×  천하포문



## 앞으로 어떤 세계를 구현해 나갈 것인가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가까워지는 날 새벽, 문득 저런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분명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몇 가지 짐작 가능한 부분들은 있을 터. 나는 '강사'로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몇 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언제나 그랬듯 올해 역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대들과 함께 이 기간을 헤쳐 왔고 또 이겨나가고 있다.

그러나 예년과는 다르게 예상하지 못한 몇몇 장면들의 등장으로 인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다. 그것은 '문학, 독서, 문법'과 같은 국어 시험과 관련된 질의가 아닌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에 대한 실로 구체적이고, 근원적인 질의들 때문. 당황했던 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늘 '주체성'을 강조했던 내가 정작 '주체성'을 가지길 원하는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 역시 기성세대가 그랬듯 '공부'와 '대학'의 틀에 그대를 집어넣으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그랬다. **나도 별 볼일 없는 인간이라는 것.**

어느 순간부터 국어과목을 잘 가르쳐야만 하는 학원 강사, 성적을 올려주는 훌륭한 강사의 역할과 그대들보다 몇 년이라도 더 살아본 인생의 한 선배, 이른바 '꼰대'가 아닌 성숙도와 나이가 정비례의 함수관계를 이루는 '어른'으로서의 역할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대들 앞에 서야하는 것인가. 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하는 것인가.

세상은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빠르게 바뀌어 왔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그래. 과거와 달리 지금의 학생들은 대학과 공부보다 '나 자신의 존재' 그리고 '삶의 의미'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신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의 전형들인 것. 삶의 본질을 논하는 물음 앞에 대학과 공부가 선행하지 못함은 당연한 것일 터.

그렇기에 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교육이 그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다. 즉 돌아봐야할 시점에 와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교육은 '대학입시'라는 하나의 관문만을 향해 달리는 폭주기관차와 같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다른 풍경을 보거나 뛰어내리는 사람들, 그리고 낙마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매몰차게 대하여 왔던가. 상대가 조금 뒤처진다면, 힘들어한다면 마땅히 손을 잡고 이끌어주어야 함에도 우린 약속이나 한 듯 그에게 인색하고 냉정하다. 그가 배려의 대상, 협력의 대상이 아닌, 짓밟아야하는 '경쟁자', 낙오한 '패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몇 달간 해온 고민과 생각의 흔적을 이 짧은 한 장의 종이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깊이와 양이 방대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고민이 정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내린 보잘 것 없는 '내 결론'을 이 두서없는 글을 읽고 있는 그대와 함께 나누고 싶다. 그로 인해 나 스스로가 한명의 강사가 아닌 진정 교육을 생각하는 '선생'. 정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깨어있는 교육자를 희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그대들 앞에 서고 싶은 바람뿐이다.

점수와 대학만을 생각하는, 오직 그것만이 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한다.

세상에는 대학과 성적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삶의 갈림길에서 오직 '대학'만이 답이고 그것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대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그 길이 힘들더라도 내가 함께 걸어주겠다는 믿음을, 그리고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다는 용기를 진심으로 주고 싶다. 모난 길을 걸어감에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그렇기에 앞으로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문제를 풀고 있는 있으나 그 속에 삶의 지혜와 삶의 의미를 함께 담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려 한다. 그 전에 하나만 약속하자. 그동안 그대가 노력해온 시간과 부족하게 보내버린 시간이 있다. 3월의 내 성적이 있다. 그걸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자. 그리고 이전 끝을 향해 달리기만 하자. 결과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어쩌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믿고 있다.

그대는 '입시에는 실패할지라도, 공부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자기 자신의 노력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심정우



[ 1 ~ 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투표는 주요 쟁점에 대해 견해를 표현하고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행위로,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다. 그래서 정치학자와 선거 전문가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즉 투표 참여 태도나 동기 등을 조사하여, 이것이 투표 결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밝힌다. 투표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으로 당정체성 모델, 사회학적 모델, 합리적 선택 모델 등이 있다.

당정체성 모델은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애착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투표 행위를 설명한다. 정당에 대한 애착심은 유권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떤 정당과 내면적으로 연결된 귀속 의식, 즉 '특정 정당에 대해 가지는 소속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속감은 부모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형성되며,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정치적 태도로 간주된다.

사회학적 모델은 유권자의 사회적 배경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투표 행위를 설명한다. 이 모델은 계급, 인종, 종교, 지역 등이 정당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던 서유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 모델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과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가진 유권자들은 투표 행위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보인다고 강조한다.

합리적 선택 모델은 유권자 개인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투표 행위를 설명한다. 이 모델에서는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투표 행위를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자신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한다고 본다.

그런데 당정체성 모델은 유권자가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을 보고 투표하는 점을, 사회학적 모델은 유권자가 사회적 배경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에 의해 투표하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합리적 선택 모델은 유권자도 결국 사회적 배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하지만 투표는 개인, 사회, 정치 사이의 상호 작용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원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표 행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합리적 선택 모델에서는 투표 행위가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② 사회학적 모델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 ③ 당정체성 모델에서 말하는 '소속감'은 유권자가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었을 때 갖게 된다.
- ④ 투표 행위는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다.

- ⑤ 투표 행위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과 투표 결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2 위 글에서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설명한 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② 화제와 관련된 구체적 현상을 분석한 후, 기존 이론을 반박하고 있다.
- ③ 화제와 관련된 상반된 이론을 단계적으로 소개한 후,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④ 화제와 관련된 가설을 제시한 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 ⑤ 화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후, 각 이론들의 상호 관계를 해명하고 있다.

3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로 적절한 것은?

\_\_\_\_\_ < 보 기 > \_\_\_\_\_

(가) 일본의 한 선거에서 ○○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유권자가 매니페스토 운동(유권자들의 참 공약 선택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이 후보가 당선되었다.

(나) 영국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에 따라 정당을 정하고, 이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자 계급은 노동당에, 중산 계급은 보수당에 투표를 하였다.

- |             |           |
|-------------|-----------|
| (가)         | (나)       |
| ① 당정체성 모델   | 사회학적 모델   |
| ② 사회학적 모델   | 합리적 선택 모델 |
| ③ 사회학적 모델   | 당정체성 모델   |
| ④ 합리적 선택 모델 | 당정체성 모델   |
| ⑤ 합리적 선택 모델 | 사회학적 모델   |

[ 4 ~ 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지식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전문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지식을 알기 위한 과정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지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철학의 한 분야가 인식론(認識論)이다. 인식의 문제는 고대에도 소피스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에 의하여 논의되었으나 철학의 중심 문제로 등장한 것은 비교적 근대의 일이다. 그 이유는 근대에 이르러 철학적 지식도 자연 과학적 ㉠지식과 같은 확실성을 요구하게 되면서 지식의 문제가 자연히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근대 인식론은 크게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두 유형으로 나타났다.

17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경험주의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것만을 지식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은 인간의 경험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감각적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선験적(先験的)인 것은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경험주의는 지식을 얻는 방법론으로 주로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개별 현상들을 관찰하고 검증함으로써 공통된 특징을 찾아내거나 동일한 관계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현상들에 공통되는 법칙을 구성하거나 동일한 개념을 발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백조가 희다고 전 세계의 백조가 희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방법론 자체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한 합리주의는 감각에 의해 얻어지는 개별적 사실들은 항상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들은 지식이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였고, 이는 이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합리주의는 이성에 의한 지식만을 가장 이상적인 지식으로 여긴다. 여기서 이성이란 후천적인 감각 능력에 대립되는 선천적인 인식 능력을 말한다. 합리주의는 지식을 얻는 방법론으로 주로 연역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합리주의는 보편으로부터 개별을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합리주의는 감각 경험과 물리적 현상을 도외시켰기 때문에 구체적 현실에 대한 지식을 무시한다는 점과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대립에 대해, 칸트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 체계를 제시한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 중에는 감성과 오성이 있다고 보았다. 감성이란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자극(감각 자료)을 감각적인 직관으로 만드는 능력을 말하고, 오성이란 감각적인 직관에 대해 사유하여 개념화하는 능력을 말한다. 칸트는 인간의 지식은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합쳐져야 지식이 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내용은 감각 경험을 말하고, 형식은 오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 칸트는 외부에서 잡다하게 자극이 주어지면 감성이 이것을 감성의 형식으로 질서를 만들고, 오성은 이것을 오성의 형식인 범주를 통해 구성하여 지식을 완성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서 칸트는 감각적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험주의의 문제점과 감각 경험을 도외시하는 합리주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종합했던 것이다.

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합리주의는 선천적 인식 능력을 통해 지식을 얻으려 하였다.
- ② 합리주의는 개별 현상들에서 동일한 개념을 발견하려고 하였다.
- ③ 칸트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 ④ 경험주의는 지식을 얻는 방법론으로 주로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⑤ 경험주의는 지식이 인간의 감각 경험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5 ㉠과 사례가 유사한 것은?

- ① 학자가 자동차 사고를 냈다고 그의 학문적 업적까지 폄하해서는 안 된다.
- ② 타인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자신의 잘못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 ③ 만수가 경수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수를 사랑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유명한 시인이 평론했더라도 그 평론이 미술 작품에 관한 것이라면 권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사과가 달콤하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과가 달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6 위 글의 '칸트'가 <보기>의 '거미형 학자'에게 조언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베이컨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거미는 자신의 몸에서 줄을 뽑아 집을 짓고, 나중에 그 줄을 먹은 후에 다시 줄을 뽑아낸다. 이런 거미형 학자는 외부에서 추가되는 자료를 무시하고 자신의 사고 속에 있는 것만으로 이론을 만든다. 이들은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지만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 ① 자신의 내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② 이성을 버리고 감각 경험에 충실해야 오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 ③ 오성에 충실할 때 비로소 새로운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신의 내적 자료를 오성으로 개념화해야 지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 ⑤ 내용인 외부의 감각 경험과 형식인 오성이 갖춰져야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7 ~ 10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라고 말한다. 이러한 네트워크효과에는 유행효과와 속물효과가 있다.

어느 한 상품이 유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상품을 구입하려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것을 유행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유행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A 게임기의 가격이 20만 원일 때 5천 대, 15만 원일 때 6천 대로 수요량이 변한다고 한다. 그런데 유행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20만 원이었던 A 게임기의 가격이 15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게임기의 수요량이 6천 대가 아닌 8천 대로 늘어난다고 하자. 이는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게임기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이들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소비가 창출된 결과, 수요량의 증가폭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행효과는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나 연예인을 동경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소수만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 깔려 있는 경우, 그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게 되는 것을 속물효과라 한다. 예를 들어 속물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B 손목시계 가격이 3백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1천 개 더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속물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B 손목시계의 가격이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의 증가폭이 5백 개에 그쳤다고 하자.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어 남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심리가 충족되지 못해 그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이 생겨나므로, 결과적으로 수요량의 증가폭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속물효과는 상품의 희소성이 악화될 때 나타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높은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할인이나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자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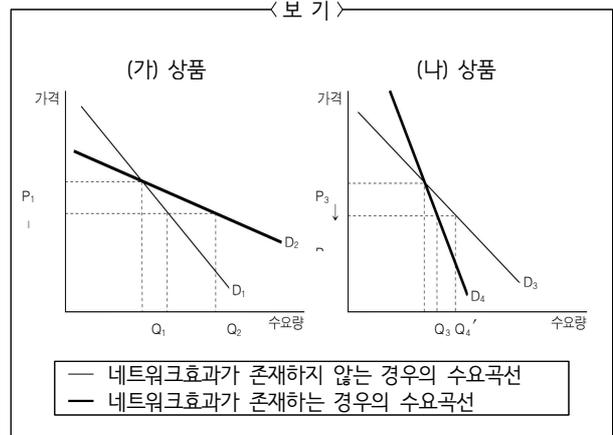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들과 독립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의 두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의 수요가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7 뒷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네트워크효과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유행효과가 유발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③ 유행효과는 어떤 소비자에게서 잘 나타나는가?
- ④ 속물효과에 따라 수요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⑤ 속물효과를 발생시키는 심리적 배경은 무엇인가?

8 뒷글과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는 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의 수요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2번과 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프가 일부 잘려서 나와, 8페이지에 그림만 따로 올려렸습니다)

- ① (가) 상품의 가격이 P<sub>1</sub>에서 P<sub>2</sub>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sub>1</sub>에서 Q<sub>2</sub>로 증가했다면, 유행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군.
- ② (가) 상품의 가격이 P<sub>1</sub>에서 P<sub>2</sub>로 하락할 때 유행효과가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Q<sub>1</sub>에서 Q<sub>2</sub>만큼 수요량이 더 증가하겠군.
- ③ (나) 상품의 가격이 P<sub>3</sub>에서 P<sub>4</sub>로 하락할 때 속물효과가 존재한다면, 수요량은 Q<sub>3</sub>에서 Q<sub>4</sub>'로 변화하겠군.
- ④ (나) 상품의 가격이 P<sub>3</sub>에서 P<sub>4</sub>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sub>4</sub>가 아니라 Q<sub>4</sub>'로 된다면, 타인과 차별화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이겠군.
- ⑤ D<sub>1</sub>과 D<sub>2</sub>, D<sub>3</sub>과 D<sub>4</sub>를 각각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개인의 수요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군.

9 다음은 <보기>의 (가), (나) 상품에 대한 판매 전략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품	판매 전략
(가)	상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무료 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한다. .... ①
	유명인들이 해당 상품을 방송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상품의 소비를 대중적으로 확대시킨다. ... ②
(나)	가격 경쟁보다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 ③
	해당 상품의 수량을 조절하여 상품의 시장 판매량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 ④
	해당 상품과 어울리는 상품을 묶음으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상품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줄인다.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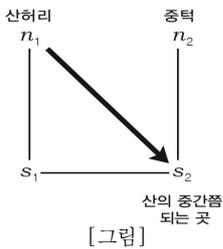
10 밑줄 친 단어 중,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내 가방에 깔려 납작해진 빵을 발견했다.
- ② 할머니 집 마루에는 돛자리가 깔려 있었다.
- ③ 그 사람의 말에는 좋은 의도가 깔려 있었다.
- ④ 동네에는 그에 대한 소문이 짝 깔려 있었다.
- ⑤ 여기저기에 깔려 있는 돈만 해도 상당한 액수였다.

[ 11 ~ 1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새로 부화된 병아리를 뜻하는 '햇병아리'가 경험이 없는 사람인 '풋내기'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면서 햇병아리는 풋내기의 의미까지 갖게 되었다.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개념을 다른 명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의미 사이의 유사성으로 명칭이 변이된 경우'와 '의미 사이의 근접성으로 명칭이 변이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의미(s<sub>1</sub>)를 가리키는 한 명칭(n<sub>1</sub>)이 있고 s<sub>1</sub>과 유사한 다른 의미(s<sub>2</sub>)가 있다고 하자. s<sub>2</sub>의 명칭(n<sub>2</sub>)이 없거나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 또는 비유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n<sub>1</sub>이 s<sub>2</sub>를 가



리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미 사이의 유사성을 근거로 명칭이 변이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산의 중간쯤 되는 곳(s<sub>2</sub>)을 의미하는 '중턱(n<sub>2</sub>)'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지 않을 때, s<sub>2</sub>를 가리키기 위해 유사한 의미의 단어 '산허리(n<sub>1</sub>)'를 사용할 수 있다. 산허리의 의미(s<sub>1</sub>)와 s<sub>2</sub>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그림]처럼 '산허리'가 s<sub>2</sub>를 가리키는 명칭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산허리는 기존의 중턱과 함께 s<sub>2</sub>를 가리키게 되어 산허리와 중턱은 의미 자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다. 이때 원래 표현하고자 한 의미와 유사한 의미가 비유의 꼴이 되므로 은유가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사이의 유사성에 의한 은유는 '안경다리'처럼 사람의 신체를 무생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경우, '노루오줌'처럼 동물의 명칭을 식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경우, '국물'처럼 구체어가 추상적 개념인 '이익'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의미 사이의 근접성에 의해 연상 작용이 심리적으로 발생할 때에도 한 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변이된다. 이때 명칭과 의미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의 [그림]과 동일한데, 다만 두 의미(s<sub>1</sub>, s<sub>2</sub>)를 연결한 선이 유사성이 아니라 근접성을 나타낸 것이 다르다.

의미 사이의 근접성에 의한 명칭 변이는 ㉡ 공간적 관계, ㉢ 시간적 관계, ㉣ 인과적 관계로 구별할 수 있다. 예컨대 '세자'를 '동궁(東宮)'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자의 거처'가 '동궁'이라는 공간적 관계의 근접성 때문에 일어난 명칭의 변이이며, 가장 맛있는 '새

우절'을 '육절'으로 부르는 것은 '육절'이 '음력 유월'에 잡은 새우로 담긴 것에서 유래한 변이이다. 그리고 '임금의 피난'을 '먼지를 덮어쓰다'라는 뜻의 '몽진(蒙塵)'이라고 부르는 것은 임금이 난을 피하면서 먼지를 덮어썼던 사건의 인과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절'을 '육절'으로 부르는 것은 '육절'이 '음력 유월'에 잡은 새우로 담긴 것에서 유래한 변이이다. 그리고 '임금의 피난'을 '먼지를 덮어쓰다'라는 뜻의 '몽진(蒙塵)'이라고 부르는 것은 임금이 난을 피하면서 먼지를 덮어썼던 사건의 인과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11 위 글의 논지에 부합하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는 음성을 이용하여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 ②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③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세계관을 반영할 수 있다.
- ④ 언어는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현상을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 ⑤ 언어는 새로운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단어를 활용할 수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을 [그림]에 적용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n(명칭)	n <sub>1</sub> : 햇병아리	n <sub>2</sub> : 풋내기
s(의미)	s <sub>1</sub> : 새로 부화된 병아리	s <sub>2</sub> : 경험이 없는 사람

- ① n<sub>1</sub>과 n<sub>2</sub>는 유의 관계에 있다.
- ② n<sub>1</sub>이 s<sub>2</sub>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s<sub>1</sub>과 s<sub>2</sub> 사이에는 공통의 의미 자질이 있다.
- ④ n<sub>1</sub>은 의미에 s<sub>2</sub>를 포함하면서 다의어가 된다.
- ⑤ n<sub>1</sub>이 s<sub>1</sub>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n<sub>2</sub>를 만들고 있다.

13 ㉠ ~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 아침(←아침밥)을 먹어야 머리가 맑아진다.
㉡. 그는 시의원을 거쳐 여의도(←국회)에 진출했다.
㉢. 위험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이 떨린다(←두렵다).
㉣. 이 시는 4.19(←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 월드컵 개막식이 상암(←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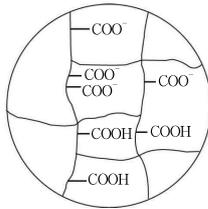
[ 14 ~ 1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물질이 물을 흡수하는 원리는 모세관 현상과 연관이 있다. 이는 물이, 가는 관을 따라 올라오는 현상으로 작은 구멍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다. 펄프나 면은 작은 구멍이 많은 섬유질로 되어 있어 흡수력이 뛰어나지만 일정량 이상이 되면 물을 더 이상 흡수할 수도 없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물이 새기도 한다. 평소에 물을 바닥에 **㉔**연지르면 화장지로 닦아 내지만 닦아야 할 물의 양이 많아지면 화장지로도 부족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고흡수성(高吸水性) 수지'이다.

㉔고흡수성 수지는 3차원 망상 구조, 즉 그물과 같은 물리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물에 의해 형성된 구멍의 크기를 천연 펄프보다는 미세하게 만들 수 있어 자기 무게보다 수십 배의 양을 저장하는 천연 펄프나 천과는 달리 수천 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구멍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흡수 속도와 흡수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위 그림과 같은 망상 구조는 고분자 중합\*이라는 화학반응을 이용해 만든다. 먼저 분자들을 연결하여 긴 분자사슬을 만들고, 이 분자사슬의 중간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분자사슬을 연결해 주면 그물 모양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물을 단단하게 설계한다면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도 물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런데 **㉔**망상 구조만으로는 고흡수성 수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물질은 크게 물과 친한 성질인 친수성과 물을 멀리하는 성질인 소수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망상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분자들은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주로 히드록시기(-OH)나 카르복시기(-COOH)와 같이 이온화가 쉽거나 물과의 수소 결합이 가능한 작용기를 갖춘 분자들을 중합하는 방법으로 망상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친수성인 작용기들은 그물 결합 내에서 서로 전기적 반발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결합 내의 공간이 확대되어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고흡수성 수지는 자기 무게의 1,000배 이상을 흡수한다. 여기에 이온화 경향이 더 높은 작용기를 사용할 경우 물뿐만 아니라 염도가 있는 액체에도 우수한 흡수력을 나타내게 된다

\*중합: 단위체가 두 개 이상 결합하여 큰 분자량의 화합물로 되는 일. ≡중합 반응.



[고흡수성 수지의 구조]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모세관 현상은 물의 흡수력을 감소시킨다.
- ②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물질은 망상 구조를 가진다.
- ③ 분자 사이에 공간이 넓어지면 전기적 반발력이 생긴다.
- ④ 고흡수성 수지는 분자들이 그물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 ⑤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는 압력을 견디는 힘이 강하다.

**15** 윗글을 발표 수업의 원고라 할 때, 발표 수업을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 고흡수성 수지에 대하여

- 대상 : 3학년 ○반 학생들
- 발표 내용 및 방법
  - 시각 자료를 통해 ㉔의 구조를 보여준다. …………… ①
  - 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시한다. …………… ②
  - ㉔이 ㉔의 형태를 지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③
  - 사례를 들어 ㉔의 활용 분야를 자세히 보여준다. … ④
  - ㉔의 특성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한다. …………… ⑤

**16**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장마철에 습기를 제거하려고 구입한 제습제에는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 있을 거야.
- ② 친수성 작용기를 포함한 고분자 물질을 선박의 표면에 바르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겠어.
- ③ 아기들이 착용하는 기저귀에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하면 최적의 흡수력을 얻을 수 있겠어.
- ④ 망상 구조가 단단하게 설계된 꽃꽂이용 밑판은 더 많은 수분을 꽃에 제공할 수 있을 거야.
- ⑤ 물기 제거를 위한 청소용 스펀지는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로 제작할 수 있겠어.

[ 17 ~ 20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끝없이 발전하고 있는 과학 기술은 어릴 적 환상의 한 부분을 점차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위그(WIG, Wing-In-Ground)선'이 그 가운데 하나다. 위그선은 날개로 수면 위에 떠서 빠른 속도로 물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배다. 이 배가 처음 개발된 것은 1960년대이지만,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미국의 스파이 위성이 카스피 해에서 시속 550km로 움직이는 괴물체를 발견한 1976년의 일이다. 이 괴물체는 뒤에 소련의 위그선으로 밝혀졌는데,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배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위그선을 '바다 괴물'이라고 불렀다.

위그선의 가장 큰 특징은 수면 위에 낮게 떠서 비행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중을 비행하는 날개 끝에서는 빠르게 회전하는 유동적(流動的)인 소용돌이 현상인 와류(渦流)가 강하게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날개가 전진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어 결국 선체는 큰 저항을 받게 된다. 하지만 수면 가까이 날아갈 경우 날개 끝에 생기는 와류가 현격히 줄어든다. 수면과 날개 사이의 간격이 좁아 와류가 잘 발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그선처럼 수면에서 5m 이내로 조금만 떠올라 날아가는 경우 날개가 받는 양력, 즉 상승력은 공중을 비행하는 경우보다 대단히 높아지게 된다.

배는 수면에 닿아 있어 이로 인해 생기는 선체 저항을 피할 수 없지만, 위그선은 이런 선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수중 날개로 활주하는 초고속선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처럼 물속에 있는 날개는 수면에 근접할수록 효율이 떨어지지만, 수면 위에 있는 날개는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효율이 향상되는데, 이를 '지면 효과(ground effect)'라고 한다. 위그선은 이러한 효과를 이용해 선체를 수면 위에 띄운 뒤 항공기용 프로펠러 엔진으로 전진한다. 위그선이 물 위를 달리는 항주 속도는 시속 100km에서 최고 500km에 달한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위그선은 일반 항공기나 초고속선에 비해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해상에서 바로 활주하기 때문에 활주로를 건설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연안의 작은 섬이나 해안의 작은 도시처럼 공항 시설을 건설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위그선이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

위그선에 관한 가장 큰 난제는 파랑(波浪) 중 ㉠ 이착수(離着水) 문제다. 파랑이 없는 수면에서의 효율성이 높은 부양 방식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파랑이 있는 수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착수할 수 있는 방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체 형상 및 제어 방식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위그선은 일반 항공기와는 달리 해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하부 선체의 구조 강도가 항공기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돼야 한다. 즉, 구조 강도를 높이면서도 경량화 되어야 위그선이 효율적으로 운항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강도가 필요한 부분은 금속 재료를 사용하고 강도에 문제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신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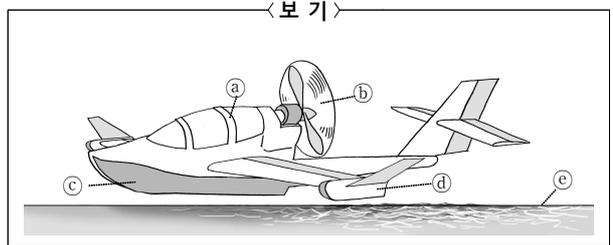
또한 위그선은 항공기와 운항 영역 및 고도가 다르므로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값비싼 항해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장비들이 운항 특성에 맞게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가(船價)가 적절한 가격대로 형성되어야 실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그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충분히 활용 함은 물론 위그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운항 선사와 지방자치 단체, 외국 기관들도 처음부터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하면 최종 실용화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1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위그선과 항공기는 운항 영역 및 고도에 차이가 있다.
- ② 위그선은 날개가 있는 배로 일반적인 배보다 속도가 빠르다.
- ③ 위그선은 초고속선보다 더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
- ④ 위그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 ⑤ 위그선과 초고속선은 수중 날개가 있어 비슷한 속력을 낼 수 있다.

18 위 글을 바탕으로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는 항공기의 구조와 비슷하므로 실용화를 위해 항공기에 쓰이는 소재를 써야겠다.
- ② ㉣는 와류를 이용하여 배를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군.
- ③ ㉤는 해수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신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것이 좋겠어.
- ④ ㉡가 해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양력이 증가되어 에너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겠군.
- ⑤ ㉥에서 파랑이 일어도 위그선의 운항에는 별 지장이 없겠군.

19 <보기>를 참고할 때, 단어의 조합 방식이 ㉠과 다른 것은?

< 보 기 >

㉠에 적용된 단어의 조합 기준

- (1) 통합되는 두 단어가 반의 관계에 있음.
- (2)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두 단어에서 공통되는 어휘나 요소가 생략됨.

<예> [ 이수(離水) + 착수(着水) → 이착수(離着水) ]

- 이수(離水) : 비행 물체 등이 수면을 떠나 날아오름.
- 착수(着水) : 비행 물체 등이 수면에 내림.

- ① 냉온수(冷溫水)    ② 장단점(長短點)    ③ 등하교(登下校)
- ④ 원근감(遠近感)    ⑤ 출입구(出入口)

20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파랑이 없는 수면에서의 이착수가 가능한 위그선
- ② 시속 100km~500km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위그선
- ③ 교각 등과 같은 장애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그선
- ④ 수면과의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운항할 수 있는 위그선
- ⑤ 하부선체의 구조 강도를 높이면서도 경량화가 가능한 위그선

[ 21 ~ 2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예를 예술로 볼 수 있을까? 공예품은 미적 대상일까? 18세기 후반에 발달한 근대 예술철학은 아름다움을, 외적인 목적 없이 대상에 내재해 있는 의미라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예술과 비예술, 특히 순수미술과 공예를 구분하여 공예를 예술로 볼 수 없게 만들었으며, 기능과 미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잦아져서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순수미술은 대상이 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작가와 관람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미적인 의사소통이다. 이는 작가가 대상에 담은 의미를 관람자가 관람을 통해 재구성해 내는 행위로 실현된다. 이때 작가가 대상에 담은 의미는 대상의 외적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공예는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외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 실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예품이 가진 기능이라는 목적 때문에 공예가는 미적 의도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일까? 공예품은 관람자에게 미적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것일까?

전통적인 도제, 길드 제도 하의 ㉠ '공방 공예'는 공방의 이름이 공예가의 이름보다 앞서 있었다. 공예가들은 공방의 이름과 스타일 아래 종속되어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을 뿐 자신만의 창조적인 개성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현대 공예의 한 흐름인 ㉡ '스튜디오 공예'는 공예의 개념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스튜디오 공예는 공예품으로부터 기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제거하여, 기능을 부차적인 혹은 임의적인 속성으로 변화시켰다. 오른쪽 그림은 ㉢ 끈기 라키의 '뿔(Spike)'이라는 작품으로, 바구니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나뭇가지들이 뿔으로 연결되어 위험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결국 실용적 사물인 바구니를 사용하기 불편하고 불친절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기능의 파괴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바구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상에 작가의 의도를 담게 된다.



스튜디오 공예는 공예품이 실제 기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실제 기능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에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예품에 있어 미적 표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공예가에게도 작품 속에 자신의 미적 의도를 담을 수 있음을 뜻하는 매우 극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스튜디오 공예가 의미하는 바를 단순히 공예와 순수미술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예를 대하는 생각의 틀이 그 미적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제한하는 편견에 갇혀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21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예 개념의 확장 - 형태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 ② 순수미술의 상징성 - 시각적 이미지의 재구성
- ③ 공예에 대한 새로운 시각 - 스튜디오 공예가 보여주는 가능성
- ④ 순수미술과 공예의 차이점 - 대상을 다루는 방식을 중심으로
- ⑤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 시대와 공간에 따라

22 ㉠과 ㉡에 대해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공예가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 ② ㉡은 예술로 인정받기 위하여 대상의 외적 목적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을 것이다.
- ③ ㉠은 ㉡과 달리 기능과 예술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④ ㉡은 ㉠과 달리 공예의 전통에서 벗어남으로써 관람자와의 미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작가의 미적 의도를 관람자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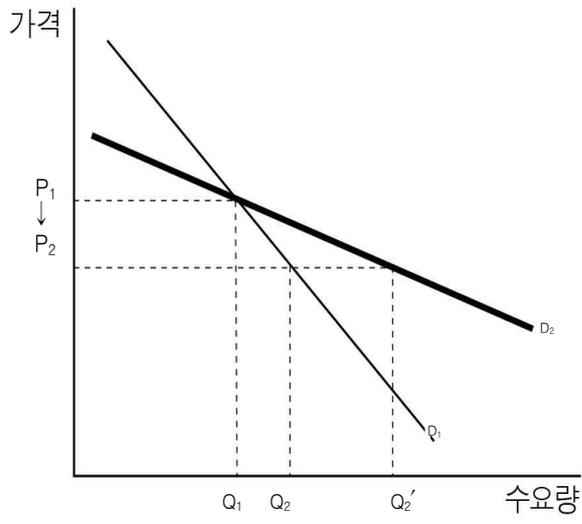
23 <보기>의 '다다익선'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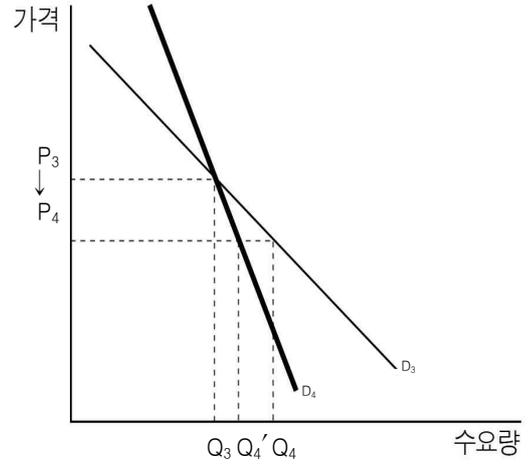
백남준은 장치 브라운관이 캔버스를 대신할 것이라고 하면서 TV 모니터로 구성된 「다다익선」이라는 비디오아트 작품을 창작했다. 이 작품은 하나의 송신자에 다수의 수신자가 대응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원리를 은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① 기성 제품을 재활용하여 익숙한 주제를 드러냈다.
- ② 관람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 ③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대중 매체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관람자에게 친근함을 주고 있다.
- ⑤ 대상의 기능에 새롭게 접근하여 예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가) 상품 ]



[ (나) 상품 ]



[ 1 ~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꺠를 걸  
 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黃金)의 꽃같이 곧고 빛나던 옛 맹서(盟誓)는 차디찬 티끌  
 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追憶)은 나의 운명(運命)의 지침(指針)  
 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  
 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  
 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칩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으로 만들고 마는 것  
 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希望)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  
 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沈默)을 휩싸고  
 듭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나의 소년시절은 은(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喪輿)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 빛에 혼자 때없이 그 ㉡꺠를 넘어  
 강(江)가로 내려갔다라도 노을에 함복 자주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 가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몹서리쳤다. 그런 날은 향유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동구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  
 - 김기림, 「길」 -

(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다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앉은 석경(石鏡)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다.  
 - 김수영, 「파발가에서」 -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모순 어법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재회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시상의 흐름이 바뀌면서 어조가 변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화자 자신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 (나)의 ㉢과 시적 정조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 ① 적막한 겨우내 들녘 끝 어디에서 / 작은 깃을 얹고 다리  
 오그리고 지내다가 / 이 보오얀 봄길을 찾아 문안하여  
 나왔느뇨.  
 - 유치환, '춘신(春信)' -
- ②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 온몸으로 가자. / 허공 뚫고 /  
 온몸으로 가자. /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 박혀서 /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 고은, '화살' -
- ③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 정호승, '또 기다리는 편지' -

- ④ 사립 너머 멀리 / 면사무소 지붕 위의 올림ピック 휘날리고 /  
예의 확성기에선 올림픽노래 울려 퍼져도 / 우리의 기쁨은  
화려한 데 / 시끄러운 데 있지 않고 / 노상 가슴 설레고 가슴  
뿌듯한 이 일 / 씨 뿌리고 거두는 일에 하루해 뜨고 진다.  
- 고재중, '텃밭에서의 하루' -
- ⑤ 1947년 봄 / 심야(深夜) /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의 바다 /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境界線) 용당포 /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嬰兒)를 삼킨 곳. /  
스무 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水深)을 모른다.  
-김종삼, '민간인'-

3 <보기>는 (다)를 감상하면서 생긴 의문들이다. 그 의문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삶은 계란의 껍질'  
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로 아래 행에서 '~ 뜻'이라고 표  
현된 것으로 보아, '묵은 사랑'을 비  
유적으로 표현한 걸 거야. .... ㉠

왜 '벗겨 내야할  
때'가 아니라 '벗  
겨질 때'라고 했  
을까?

'벗겨 내야할 때'와 '벗겨질 때'는  
강제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잖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억지로 떨쳐 내  
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떨쳐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그랬을 거야.  
..... ㉡

'붉은 파발'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  
는 걸까?

'붉은 파발'은 새싹이 돌아나는 장  
소잖아. 이것은 묵은 것과 새싹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소를 비유적  
으로 나타낸 걸 거야. .... ㉢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  
슨 의미일까?

이것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의 관  
계를 말한 것 같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것을 잃어야 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거  
야. .... ㉣

각 연의 구성 방  
식을 거의 동일하  
게 한 이유는 뭘  
까?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주면서도  
화자 자신의 생각을 강조해서 드러  
내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 ㉤

- ① ㉠      ② ㉡      ③ ㉢      ④ ㉣      ⑤ ㉤

4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② ㉠와 ㉡는 모두 화자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곳이다.  
③ ㉠는 화자의 아픔을 심화시키는 곳이고, ㉡는 화자의 아픔을 해  
소시키는 곳이다.  
④ ㉠는 화자에게 과거를 보게 하는 곳이고, ㉡는 화자에게 미래를  
보게 하는 곳이다.  
⑤ ㉠는 화자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는 곳이고, ㉡는 화자  
에게 방향을 유발시키는 곳이다.

[ 5 ~ 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  
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 놓았다.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 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  
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즐기려는 뜻을 보였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 몇 사람 치 월  
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간디그려?" /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팔십만 원씩 주구 가져왔다."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나의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 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A]

"웬 늙은 잉어가 사람버دم 비싸다나?"

내가 기가 막혀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면그려. 벨어낸벤또(베토벤)라나 웨라  
나를 틀어 주면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차에코플구쉬  
어(차이콥스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좌우간 곡을 틀어 주는 대루 못 추는 춤이  
없는 순전 탄따라 고기닝께. 물고기두 꼬랑지 흔들어서  
먹구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그 집에서 춤 봤  
구먼."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자  
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엿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썬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  
다. /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넋 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하고많은 사람 중에 하필  
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었다.

"글쎄유, 아마 밤새에 고뽕이 들었던 개비네유."

유자는 부러 탄청을 하였다.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두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였다. /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께 여러 가  
지루다 객고가 썩여서 조시두 안 좋았을 테구..... 그러디다가  
부릇쓰구 지루박이구 가락을 트는 대루 디럽다 취했으니께 과

로해서 몸살끼두 다소 있었을 테구……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덜일수록이 다다 탈이 많은 법이니께…….”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잖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불상을 닦는 일로 총수의 미움을 사게 된 유자는 총수의 개인 운전수 자리에서 쫓겨나 회사에 속한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 낸 것이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주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덩이 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이 셋방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별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미와 단칸 셋방에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 버려 어린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 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 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두 포대 팔아 주고, 그리고 연탄을 백 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여탈\* 수 있는 한계였다.

[B]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 가게에서 연탄 백 장을 지게로 저 올려 비에 안 젖게 쌀아 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 드는 것은 만날 열간하여 엮어 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드러났던 것이다.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름을 개 안 달게 고양이 안 달게 아무지게 매달아 주면서,

“뵝(부엌)에 제우(겨우) 지랑(간장)뵝이 윙으니 뵝이구 수제비구

건건이가 있으야 넘어가지유. 탄불에 귀 자시든 뵝술에 쪼 자시든 하면, 생긴 건 오죽잖어두 뇌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서 볼 만혈류.”

쌀이나 연탄을 들여 줄 때는 회사에서 으레 그렇게 돌봐 주는 것이거나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 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 이문구, 「유자소전(兪子小傳)」 -

\* 배참: 꾸지람을 듣고 그 화풀이를 다른 데다 함.

\* 여투다: 돈이나 물건을 아껴 쓰고 나머지를 모아 두다.

\* 드티다: 밀리거나 비켜나거나 하여 약간 틈이 생기다.

### 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알고 있었다.
- ② '노파'는 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유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 ③ '스페어 운전수'들은 그들의 자질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별이가 좋았다.
- ④ '총수'는 비단잉어들이 죽은 이유에 대한 '유자'의 대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 ⑤ '유자'는 그룹 내 '동료 운전수'들의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적당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 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② [B]는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주인공의 부정적 측면을, [B]는 주인공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여 인물의 이중적인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7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자소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전(傳)의 형식을 빌려 와 전통적 삶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려고 했다. 또한 지역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체를 사용했고, 인간적 도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평면적인 인물을 통해 산업화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 가치관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있다. 이 작품은 양심적이고 인정미 넘치는 주인공의 삶을 조명하여 산업화 속에 사라지고 있는 전통적 삶의 양식을 보여 주고자 했던 작가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① 유자가 사용하는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통해 토속적인 느낌과 인물에 대한 정감을 주고 있군.
- ② 유자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인정미 넘치는 모습을 통해 인간적 도리를 실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③ 유자에 얽힌 일화들을 소개하여 그가 한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의 형식을 빌려 온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충수의 사치와 허영심에 대한 유자의 불만스러운 태도를 통해 산업화 시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충수의 운전수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처지가 바뀌고 나서야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자는 평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군.

[ 8 ~ 1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명식의 밤 외출은 날이 갈수록 잦아 갔다. 2층 서재로 숨어 들어가 그의 가면 뒤에서 이상스런 휴식에 젖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하여 그는 사무실에서 물어 온 피곤기를 가면 뒤에서 말끔히 씻어낸 다음 지연을 찾아 ㉠ 밤늦은 2층 계단을 내려오곤 했다.

[A] 명식은 분명 그 가면 뒤에서라야 비로소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듯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변신의 연극기 같은 것에서 오는, 그 가면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새삼스럽게 자기를 느끼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어쨌든, 이제 지연이 명식을 속속들이 다 만나는 것은 그가 그 밤 외출에서 이상스런 방법으로 피로를 씻고 새 힘을 얻어 돌아오는 날뿐이었다.

이윽고 지연에게도 한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명식을 만나고 싶은 밤의 소망은 반드시 그의 가면을 연상시켜 주곤 했다. 지연은 명식의 가면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명식의 가면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명식의 가면이 어느새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어쩌면 셈인지 그녀는 명식의 동기까지를 포함하여 그러한 자신을 스스로 수긍해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명식에게서도 혹시 그런 기미가 엿보이고 있었기 때문일까. ㉡ 지연은 이제 오히려 명식의 맨얼굴 쪽에서 어떤 불편스런 가면이 느껴지고 있을 지경이었다. 그녀에게는 명

식이 맨얼굴로 대문을 들어설 때의 표정이야말로 영락없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뻣뻣하고 변화 없고 그리고 어떤 뻘뻘스런 피곤기 같은 것이 온통 그를 가려 버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러나 지연은 그토록 익숙해진 명식의 가면을 아직도 똑똑히 본 일이 없었다.

그 첫날 한 번밖에 명식이 자기의 가면 뒤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을, 그것이 진짜 자기의 얼굴이나 되는 양 익숙해져 버린 가면으로 의기양양 밤 외출에서 돌아오곤 한 명식을 다시 본 일이 없었다.

지연은 보지 않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그 명식의 얼굴을 자신 속에다 깊이 지너 버리고 있었다. 문득문득 그것을 만나고 싶은 밤이 많았다. 이날도 지연은 그런 명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잠시 후 명식이 밤 외출에서 돌아온다.

한참을 기다렸다. 역시 기척이 없다. 이상한 일이었다.

㉢ 오늘 밤에도 또?

지연은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문득 어떤 별난 밤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도 명식은 썩 오랜만의 밤 외출에서 돌아와 소리 없이 2층으로 올라간 다음이었다. 지연은 물론 그녀의 침대 속에서 명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계단을 내려오는 기척이 없었다. 지연은 불쑥 상스럽지 못한 예감이 들었다. 술이 너무 지나쳤나 싶기도 했고, 그런 일이 워낙 처음이라 다른 심상찮은 변고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했다. 그녀는 기다리다 못해 결국 자기가 먼저 침대를 내려오고 말았다. 여자가 먼저 남편을 찾는 것처럼 보이기가 여간 썩스럽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녀는 명식을 살피고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루에서 잠깐 발길을 망설이던 그녀는 ㉣ 가만가만 2층 계단을 올라갔다.

㉤ 지연이 명식의 방문 앞까지 다가갔을 때 방안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판판이었다.

“좀 들어오지 그래.”

기다리고 있거나 했었던 듯 문을 열기도 전에 명식의 소리가 먼저 흘러나왔다. 술이 취해 있기는커녕 너무도 정연하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지연은 쑥스러움도 잊고 끌리듯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명식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 근처의 어둠 속에 조용히 파묻혀 있었다.

“앉지 않구.”

어둠 속이라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왔다.

어떤 분명한 의미가 담긴 말이었다. 지연은 감히 명식의 곁으로 갈 수가 없었다. 공연히 그가 두려웠다. 변장을 하고 있을 그의 얼굴을 만나 버리기가 두려웠다. 그녀는 명식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등 없는 등글의자 위로 몸을 주저앉혔다. 그러나 지연은 그러고 앉아서도 명식의 어떤 분명한 얼굴을 보고 있었다.

[B] 명식은 아직 변장을 풀지 않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가 너무 잔잔했다. 어딘가 한숨 같은 것이 묻어 있는 잔잔한 음성이었다.

지연은 명식의 그 음성으로 그가 지금 자기는 보지도 않고 창 밖으로 시선을 내보낸 채, 그녀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깊은 갈망에 젖고 있다는 것을 어슴푸레 느낄 수 있었다.

- 이렇게 불을 끄고 앉아 있으니 밤이 좋군. ㉞ 대낮은 얼굴이 너무 따가워서..... 누구나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 사람들이 얼굴 가득히 그 엄청난 대낮의 햇빛을 스스로없이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잘 단련이 되고 있는 건 다행한 일이지.

- 하지만 그건 다행스럽다고만은 할 수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가면을 든든하게 단련시켜 가고 있거든.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

- 가면이 우는 걸 보았을까.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가면의 눈물은 속으로만 흐르게 마련이거든.

명식은 역시 취기가 좀 숨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퍽퍽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앞뒤가 닿는 소리만 추려 보면 대강 그런 식이었다. ㉞ 지연이 보아 온 대로였다. 대낮을 다니는 맨얼굴에서 가면을 느끼는 대신, 가발과 콧수염으로 변장을 하고 있는 당장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기미였다. 그리고, 그래서 명식은 그러한 변장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고뇌를 가장 정직하게 안을 수 있는 듯한 태도였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앉아서 어둠에 싸인 명식의 희미한 모습만 더듬고 있었다. 그러다가 방을 나오고 말았다.

- 이청준, 「가면의 꿈」

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 자신이 보고 들은 사건을 주관적 시각에서 직접적으로 서술한다.
- ② [A]는 인물의 독백적 발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생생하게 제시한다.
- ③ [B]는 사건을 작중 상황 안에서 목격하는 인물과 그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서로 다르다.
- ④ [B]는 작중 상황 안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여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 ⑤ [B]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작중 상황 밖에서 전달하다가 작중 상황 안으로 이동하여 전달한다.

9 ㉞~㉞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㉞ : 귀가할 때 다른 가면을 지어내는 '명식'에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
- ② ㉞ : 가면을 쓴 '명식'과의 대화가 누차 반복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㉞ : '명식'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㉞ : 타인들의 시선 때문에 낮에도 변장을 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㉞ : '명식'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연'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0 ㉞와 ㉞에 제시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㉞는 아래층 인물이 위층 인물을 전과 달리 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 ② ㉞는 위층 인물이 자신의 가면을 보여 주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
- ③ ㉞는 위층 인물이 일상의 고단함을 탈피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
- ④ ㉞는 아래층 인물의 내적 욕망과 행동의 괴리가 일어나게 한다.
- ⑤ ㉞는 아래층 인물이 부부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소설 속 인물의 변신 모티프는 그가 겪는 갈등의 크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깊은 소망을 내보이는 방편일 뿐, 소망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변신은 갈등의 일시적 해소 효과가 없지 않지만, 가짜 해결의 속임수이고 상상적 희망의 기호에 불과하다. 결국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참된 자아의 진실을 근거로 하여 그것에 맞서는 것뿐이다.

- 작가의 말 중에서

- ① '지연'이 '명식'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의자에 앉은 것은 '명식'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 ② '명식'의 밤 외출이 잦아지는 것은 현실 세계와의 불화로 인하여 갈등이 고조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다.
- ③ '명식'이 가면의 눈물은 속으로만 흐른다고 말한 것은 참된 자아를 숨긴 채 살아가는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이다.
- ④ '명식'의 가면을 똑똑히 보지 않고도 그를 기다리는 '지연'의 행위는 '명식'의 상상적 희망을 자기화한 것이다.
- ⑤ '명식'이 가면을 쓴 자신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그가 일시적 속임수에 도취되었음을 의미한다.

[ 12 ~ 1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진이 여덟 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자못 황홀하여 마음에 생 각하되,

‘남아가 세상에 나 어려서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 요순 같은 임금을 만나, 나면 장수 되고 들면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띠고 옥궐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恩澤)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이 후세에 드리움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 법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문과 일백 여덟 날 염주뿐이라.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다.’

생각을 이리하고 저리하여 밤이 이미 깊었더니 문득 눈앞에 팔 선녀가 섰거늘 놀라 고쳐 보니 이미 간 곳이 없더라. 성진이 마 음에 뉘우쳐 생각하되,

‘부처 공부에서 특히 뜻을 바르게 함이 으뜸 행실이라. 내 출가 한 지 십 년에 일찍 반점 어기고 구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더니, 이제 이렇듯이 염려를 그릇하면 어찌 나의 전정(前程)에 해롭지 아니하리오?’

향로에 불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 어 ㉠ 염주를 고르며 일천 부처를 염하더니, 홀연 창 밖에 동자가 부르되,

“사형은 잠들었느냐? 사부가 부르시나이다.”

성진이 놀라 생각하되,

‘깊은 밤에 나를 부르니 반드시 연고가 있다.’

동자와 한가지로 방장에 나아가니 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으고

㉡ 등축을 낮같이 켜고 소리하여 꾸짖되,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성진이 ㉢ 섬들에 내려 꼴여 가로되,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십 년에 일찍 한 말도 불순히 한 적이 없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아지 못하나이다.”

대사가 이르되,

“중의 공부가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말쓰고 뜻이라. 네 용궁에 가 술을 취하고, 석교에서 여자를 만나 언어를 수작하고 꽃을 던져 희롱한 후에 돌아와, 오히려 미색을 권련하여 세상 부 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 여기니, 이는 세 가지 행실 을 일시에 무너뜨림이라.”

성진이 고두(叩頭)하고 울며 가로되,

“스승님아, 성진이 진실로 죄 있거나와 주계를 파하기는 주인이 괴로이 권하기에 마지못함임이요, 선녀로 더불어 언어를 수작하기 는 길을 밟을 말미암음이니 각별 부정한 말을 한 바가 없고, 선 방에 돌아온 후에 일시에 마음을 잡지 못하나 마침내 스스로 뉘 우쳐 뜻을 바르게 하였으니, 제자가 죄 있거든 사부가 달초(撻楚)하실 뿐이지 어이 차마 내치려 하시나이까? 사부 우러러 뵈 기를 부모같이 하니 성진이 십이 세에 부모를 버리고 스승님을 좇아 머리를 깎으니 연화도량이 곧 성진의 집이니 나를 어디로 가라 하시나이까?”

대사가 이르되,

“네 스스로 가고자 하기에 가라 함이니 네 만일 일고자 하면 뉘 능히 가라 하리오? 네 또 이르되 어디로 가리요 하니 너의

가고자 하는 곳이 너의 갈 곳이라.”

대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황건역사가 어디 있느냐?”

홀연 공중으로부터 신장(神將)이 내려와 청명하거늘 대사가 분 부하되,

“네 죄인을 영거(領去)하여 풍도(風道)에 가 교부(交付)하고 오라.”

**[중략 부분 줄거리]** 풍도로 끌려 간 성진은 양 처사의 아들 양소유 로 환생하고, 함께 환생한 팔 선녀와 차례로 인연을 맺게 되고 높은 벼슬에까지 오른다. 벼슬에서 물러나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두 부 인과 여섯 남자를 거느리고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문득 인생의 허무 함을 느끼게 된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더니, ㉣ 홀연 석경에 막대 던지는 소 리 나거늘 괴이히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더 니,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더라.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 사람이 대승상께 뵈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 왈,

“사부는 어디로부터 오신고?”

호승이 웃어 왈,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잇음 혈타는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홀연 깨쳐 능파 남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일 토번을 정벌할 제 꿈에 동정 용궁에 가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 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그 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다. 옳다. 비록 옳으나 몽중에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십 년을 동처하던 일을 알지 못하니 뉘 양장원을 총명타 하더뇨?”

승상이 망연하여 가로되,

“소유가 십오륙 세 전은 부모 좌하를 떠나지 않았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職名)이 있었으니**, 동으로 연국에 봉사하 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밝은 일찍 경사를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로 더불어 십 년을 상종(相從)하였으리오?”

호승이 웃어 왈,

“상공이 오히려 춘몽(春夢)을 깨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 왈,

“사부가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리오?”

호승 왈,

“이는 어렵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석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홀연 네 녀 산골로부터 구름이 일어나 대 위에 끼이어 지척을 분분치 못하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중에 있는 듯하더니 오래되어서야 소리 질러 가로되,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 서로 희 롱하느냐?”

말을 떨구지 못하여서 구름이 견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 우를 돌아보니 여덟 남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 지라. 정히 경황

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되 ㉠ 향로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 여덟 날 염주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威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 인세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급제 한림학사하고 출장입상하여 공명신퇴하고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 \* 풍도: 도가에서 '지옥'을 이르는 말.
- \* 수책: 책망을 받음.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 ④ 인물의 말을 통해 과거의 행적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⑤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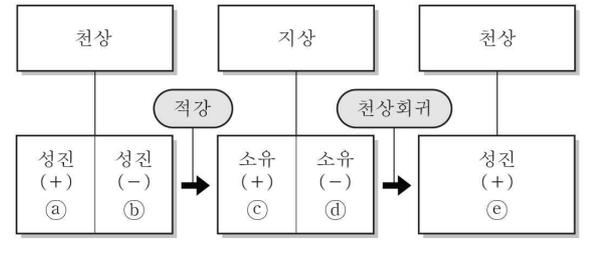
「구운몽」은 꿈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꿈속의 경험을 통해 꿈꾸기 이전보다 더욱 정진하여 득도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 주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 특히 꿈속 경험이 단 하룻밤의 '꿈'임을 강조하기 위해 입몽에서 각몽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경과 및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① ㉠의 '염주'는 주인공이 겪게 되는 꿈속의 경험을 부각하는 소재이다.
- ② ㉡의 '등축'은 주인공이 꿈에서 깨어난 후 득도할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 ③ ㉢의 '섬돌'은 주인공의 입몽과 각몽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④ ㉣의 '막대'는 주인공이 꿈꾸기 이전보다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소재이다.
- ⑤ ㉤의 향로의 '불'은 주인공의 입몽에서 각몽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경과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아래의 도식은 「구운몽」의 공간적 배경과 인물을 대응하여 나타낸 것이다. 천상적 가치에 대해 '성진(+)'는 지향을, '성진(-)'는 회의를 의미하고, 세속적 가치에 대해 '소유(+)'는 추구를, '소유(-)'는 회의를 의미한다.



- ① '여덟 선녀'를 만난 것을 계기로 '성진'의 상태는 ㉠에서 ㉢로 변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성진'이 '부처의 법문'을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문과 일백 여덟 날 염주뿐'으로 생각한 것에서 ㉡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승상'이 '십육 세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었'다는 것은 ㉣의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④ ㉤의 '소유'는 '호승'과의 만남을 계기로 천상으로 회귀하게 되었겠군.
- ⑤ '성진'이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을 떠올리는 것에서 ㉤의 성진이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15 ~ 18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라도 남원에 살고 있는 양생은 일찍이 아버이를 여읜 뒤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만복사 동쪽 골방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고요한 그 골방 문 앞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이하여 꽃이 활짝 피어 온 뜰 안 가득 백옥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 놓았다. ㉠ 그는 달 밝은 밤이면 언제나 객회(客懷)를 억누르지 못하여 나무 밑을 거닐곤 했는데, 어느 날 밤 그 꽃다운 정서를 견잡지 못하고 문득 ㉡시 두 수를 지어 읊었다.

한 그루 배꽃나무 적료함을 짝하고  
가련하다 달 밝은 밤 헛되이 보내나니  
젊은이만 홀로 누운 외로운 창가에  
어디서 고운 님은 옥통소를 불고 있나

짝 못 지은 비취새 외로이 날아가고  
 짝 잃은 원앙도 맑은 강에 노니는데

뉘 집에서 바둑 두리란 약속이 있으려나  
밤이면 서러운 창에 기대 불꽃점을 쳐 보네.

시를 다 읊고 나자 별안간 공중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진정으로 자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하는데 그 무엇이 어려울 게 있으리오.”

이 소리를 듣고 양생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 이튿날은 마침 삼월 이십사일이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곳 마을의 많은 청춘 남녀들이 으레 만복사를 찾아가 향불을 피우고는 각기 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이날 양생은 저녁에 기도가 끝나자 법당에 들어가서 소매 깊이 간직하고 갔던 저포(標簿)를 꺼내어 불전에 던지기 전에 먼저 소원을 빌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저녁엔 제가 부처님과 함께 저포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면 법연(法筵)을 차려서 부처님께 갓아드릴 것이고, 만일 부처님께서 지시면 반드시 제 소원인 어여쁜 아가씨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⑥ 축원을 마치고는 즉시 저포를 던지자, 과연 그는 소원대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는 매우 기뻐서 다시금 불전에 꿇어앉아 말씀을 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아름다운 인연은 이미 정해졌사오니, 원컨대 자비하신 부처님께서서는 소생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그는 불좌 뒤 깊숙한 곳에 앉아서 동정을 살폈다.

얼마 안 되어 과연 아가씨 하나가 들어오는데, 나이는 한 열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고, 새까만 머리에 ㉠ 화장을 곱게 한 얼굴이 마치 채운(彩雲)을 타고 내려온 월궁의 선녀와 같고 자세히 보면 불수록 너무나도 곱고 양전하였다.

그녀는 백옥 같은 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부어 불을 켜고 향로에다 향을 꽂은 뒤 세 번 절을 하고는 꿇어앉아 슬피 탄식하였다.

“아아, 인생이 박명하다고는 하나 어찌 이와 같을 줄 알았겠는가?”

여인은 품속에서 뭔가 글이 적힌 종이를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 고을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뢰옵니다.

지난날 변방을 잘 지키지 못해 왜구가 침략하였습니다.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가옥이 불타고 백성들이 노략질 당하였습니다. 이리저리로 달아나 숨는 사이 친척이며 하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스스로 규방 속에 들어가 끝내 정절을 지켜서 무도한 재앙을 피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를 지킨 일을 옹계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의 풀밭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셨으니, 제가 그곳에 머문지도 이미 삼 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냄을 가슴 아파하고,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텅 빈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기구한 제 운명에 한숨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찬란한 난새가 혼자서 추는 춤에 마

음 아파합니다. ㉢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녀은 녹아 없어지고, 여름밤 겨울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제 처지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기구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 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메어 슬피 울었다. 양생이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뛰쳐나가 말했다.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양생은 종이에 쓴 글을 읽어 보더니 기쁨이 얼굴에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셨소?”

그녀는 대답했다.

㉣ “저도 역시 사람입니다. 저를 의의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만 좋은 배필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이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승려들은 한쪽 구석진 골방으로 옮겨가 있었고,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으며, 행랑이 끝난 곳에 좁다란 판자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불러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별 주저함 없이 따라갔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를 없었다.

(중략)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함께 개령동으로 향하였다. 어느 한 곳에 이르니 다복석이 들을 덮고 참찬한 고목 속에 정쇄한 수간 초당이 나타났다. 양생은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침구와 휘장이 잘 정리되어 있고, 밥상을 올리는데 모든 음식이 어젯밤 만복사의 차림과 차이가 없었다. 양생은 펍이나 기쁜 마음으로 이를 동안을 유유히 보냈다.

시녀는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조금도 교활한 면이 없었다. 좌우에 진열되어 있는 그릇들은 깨끗하고 품위가 있어 그는 간혹 의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은근한 정에 마음이 끌려 다시금 그런 생각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양생에게 말했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의 사흘은 인간의 삼 년과 같습니다. 가연을 맺은 지가 잠깐인 듯하나 오래 되었사오니, 너무 서운하긴 하나 당신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셔서 옛날의 살림을 돌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여보시오. 이별이라니 갑작스레 그게 웬 말이오?”

“오늘 못 다 이룬 소원은 내세에 다시 만나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예절도 인간과 다름이 없사오니 저의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만나보고 떠나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대화가 끝나자 그녀는 시녀를 시켜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초대하였다.

1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복되는 행동에 담긴 양생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여인의 외양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과거 회상을 통해 자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과장된 표현을 통해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되묻는 방식을 통해 양생의 의증을 확인하고 있다.

16 ㉢와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에 비해 화자의 다양한 소망이 열거되고 있다.
- ② ㉢는 ㉣와 달리 자연물에 감정을 투영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는 ㉢에 비해 본심을 숨긴 채 우회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 ④ ㉣는 ㉢와 달리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와 ㉣는 모두 가정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은 불우한 삶으로 인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양생은 결국 현실에서 문제 해결의 출구를 만들지 못하다가 환상 세계의 존재와 교류하게 됨으로써 욕망의 충족을 경험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는 서로 다른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환상 세계에서 이룬 욕망의 성취는 현실 세계에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 ① 양생이 부처님에게 저포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군.
- ② 양생과 여인이 서로 만나 즐거움을 나누는 곳이라는 점에서, 만복사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 환상 세계의 존재가 교류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여인이 양생에게 이곳의 사흘이 인간 세계의 삼 년과 같다고 말하는 장면은,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의 질서가 다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양생이 여인과 이별하고 인간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환상 세계에서 성취된 욕망이 현실 세계에까지 이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양생이 좋은 배필을 얻고자 했으나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현실 세계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 ③	2. ①	3. ⑤	4. ②	5. ⑤
6. ⑤	7. ②	8. ②	9. ⑤	10. ③
11. ⑤	12. ⑤	13. ③	14. ④	15. ④
16. ②	17. ⑤	18. ④	19. ④	20. ③
21. ③	22. ④	23. ⑤		

2012학년도 10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01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 정보를 파악한다.

[정답 맞히기]

- ③ 당정체성 모델에서 말하는 ‘소속감’은 유권자가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었을 때 갖게 된다.
  - 지문에서 말하는 대상의 정의를 인식한 상태에서 선지를 분석해야 한다.
  - 당정체성 모델에서 말한 ‘소속감’은 부모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유권자가 어떤 정당과 내면적으로 연결된 귀속 의식을 말한다. 여기서 내면적인 귀속 의식이라는 것은,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심리적인 소속감과 애착을 느끼는 것으로 정당과 공식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 ② 합리적 모델에서는 투표 행위가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4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모델(합리적 선택모델)에서는 ~ 투표 행위를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사회학적 모델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 3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사회학적 모델은 유권자의 사회적 배경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라고 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투표 행위는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다.
  - 4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모델(합리적 선택모델)에서는 ~ 투표 행위를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투표 행위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과 투표 결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 1문단 세 번째 문장에서, ‘이 연구(투표 행위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즉 투표 참여 태도나 동기 등을 조사하여, 이것이 투표 결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밝힌다.’라고 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02

[출제의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정답 맞히기]

- ① 화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설명한 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이 글은 먼저 화제(투표 행위에 대한 연구)제시를 통해 투표 행위와 관련된 당정체성 모델, 사회학적 모델, 합리적 선택 모델 등의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 각 모델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즉 문제점을 제시하며 그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03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글에 제시된 이론에 적용한다.

[정답 맞히기]

- ⑤ (가) 합리적 선택 모델, (나) 사회학적 모델

이렇게 개념을 보기 사례에 적용시키는 문제는, 각 대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대응시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 문항분석

\* <보기>의 (가)

→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자, 유권자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여 그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다는 내용의 보기이다. 이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을 보고 유권자들이 투표했다는 것은 즉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표를 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합리적 선택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 <보기>의 (나)

→ (나)는 영국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계급에 따라 결정된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으로, 유권자의 사회적 배경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사회학적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2009학년도 10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04

[출제의도]

글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 ① 합리주의는 개별 현상들에서 동일한 개념을 발견하려고 하였다.

→ 개별 현상들에서 동일한 개념을 발견하려고 한 것은 합리주의가 아니라 경험주의이다. 판단근거는 다음의 정의들이다.

▶지문요점분석

\* 대상[1] 정리

- 경험주의 = 인간의 경험으로 도출
- 지식을 얻는 방법론으로 주로 귀납적 방법 이용

\* 대상[2] 정리

- 합리주의 = 영원히 불변하는 보편적인 것을 추구
- 이성에 의해서만 가능, 이성에 의한 지식

[오답 피하기]

- ① 합리주의는 선천적 인식 능력을 통해 지식을 얻으려 하였다. → 선천적 지식 능력은 후천적인 감각 능력에 대립되는 이성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칸트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 칸트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 체계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칸트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선지는 옳다.
- ④ 경험주의는 지식을 얻는 방법론으로 주로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 경험주의의 정의를 바탕으로 선지를 읽는다. 경험주의는 지식을 얻는 방법론으로 주로 귀납적 방법을 이용한다는 내용을 <생각하며 글 읽기>에서 하였다.
- ⑤ 경험주의는 지식이 인간의 감각 경험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4번 선지의 판단 근거와 동일하다.

05

[출제의도]

경험주의 방법론의 오류를 이해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 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사과가 달콤하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과가 달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 ①은 한정된 경험으로 얻은 지식을 전체로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귀납법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맛 본 사과의 경험을 사과 전체의 맛으로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③, ④ → 한정된 경험으로 얻은 지식을 전체로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귀납법의 오류와 대응하지 않는 사례이다.

06

[출제의도]

칸트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합리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 ⑤ 내용인 외부의 감각 경험과 형식인 오성이 갖춰져야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기>의 '거미형 학자'는 자신의 사고 속에 이는 것만으로 이론을 만들어내므로, 이 지문 속의 합리주의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칸트는 온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형식만을 추구하는 합리주의자에게 칸트는, 내용인 외부의 감각 경험과 형식인 오성을 갖추어야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할 것이다. 판단근거는 아래와 같다.

▶지문요점분석

\* 대상[3] & 정의 & 정의의 부연설명 :

→ 이러한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대립에 대해, 칸트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 체계를 제시한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 중에는 감성과 오성이 있다고 보았다.

\* 정의 :

→ 감성이란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자극(감각 자료)을 감각적인 직관으로 만드는 능력을 말하고,

\* 정의 :

→ 오성이란 감각적인 직관에 대해 사유하여 개념화하는 능력을 말한다. 칸트는 인간의 지식은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합쳐져야 지식이 된다고 생각했다.

\* 정의의 부연설명 :

→ 여기서 내용은 감각 경험을 말하고, 형식은 오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 칸트는 외부에서 잡다하게 자극이 주어지면 감성이 이것을 감성의 형식으로 질서를 만들고, 오성은 이것을 오성의 형식인 범주를 통해 구성하여 지식을 완성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서 칸트는 감각적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험주의의 문제점과 감각 경험을 도외시하는 합리주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종합했던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③, ④ → 칸트의 주장과 대응하지 않는 선지들이다. 이런 문항은 발문에 근거하여 '칸트의 입장을 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칸트는 온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의 부연설명 부분에 근거하여, 내용은 감각경험을 말하고, 형식은 오성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선지들은 칸트의 주장과 대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칸트가 거미형 학자에게 할 적절한 조언이 아니다.

2013학년도 4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07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② 유행효과가 유발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유행효과가 발생하는 사례와 결과가 나와 있어도, 이것이 유발하는 문제점은 찾아볼 수 없다.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나 연예인을 동경하는 소비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문제점으로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소비가 횡행하고……' 와 같이 주어지지 않는 한 문제점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는 하나의 가치중립적인 현상일 뿐이다.

[오답 피하기]

① 네트워크효과의 개념은 무엇인가?

→ 네트워크효과의 개념을 1문단에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혔다.

③ 유행효과는 어떤 소비자에게서 잘 나타나는가?

→ 2문단 마지막 문장에 유행효과는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나 연예인을 동경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제시되어 있다.

④ 속물효과에 따라 수요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이 지문에서 등장하는 효과들과 그 사례들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지문요점분석

→ '가격의 변동(게임기의 가격 하락/손목시계의 가격 하락) → 효과 발생(유행효과/속물효과) → 수요량 변동(수요 증가폭 증가/수요 증가폭 감소'

→ ④는 이 세 단계에서 뒤 두 단계를 묻는 것이다. 속물효과가 일어나면 수요량의 증가폭은 줄어든다고 지문에 제시되어 있다.

※ 주의

→ 지문에 등장한 사례에서는 가격이 하락한 후 효과가 발생할 때, '소요량의 증가폭'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를 '수요량'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잘못 독해하지 않도록 하자.

⑤ 속물효과를 발생시키는 심리적 배경은 무엇인가?

→ 속물효과를 발생시키는 심리적 배경은 3문단 첫 문장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소수만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심리'로 나와 있다.

08

[출제의도]

지문의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② (가) 상품의 가격이 P<sub>1</sub>에서 P<sub>2</sub>로 하락할 때 유행효과가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Q<sub>1</sub>에서 Q<sub>2</sub>만큼 수요량이 더 증가하겠군.

→ (가)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그런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얼마나 많은 지를 물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Q<sub>1</sub>에서 Q<sub>2</sub>로 증가했다. 그런 경우(유행효과가 존재)는 Q<sub>1</sub>에서 Q<sub>2</sub>로 증가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Q<sub>2</sub>에서 Q<sub>2</sub>만큼 증가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가) 상품의 가격이 P<sub>1</sub>에서 P<sub>2</sub>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sub>1</sub>에서 Q<sub>2</sub>로 증가했다면, 유행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군.

→ (가)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Q<sub>1</sub>에서 Q<sub>2</sub>로 증가한 것은 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수요곡선이므로, '유행효과가 존재하지 않다'는 옳은 설명이다.

③ (나) 상품의 가격이 P<sub>3</sub>에서 P<sub>4</sub>로 하락할 때 속물효과가 존재한다면, 수요량은 Q<sub>3</sub>에서 Q<sub>4</sub>로 변화하겠군.

→ 그래프에 따르면 (나) 상품의 가격은 하락할 때 속물효과가 존재한다면(붉은 곡선에 따라) 수요량이 Q<sub>3</sub>에서 Q<sub>4</sub>로 변화한다.

④ (나) 상품의 가격이 P<sub>3</sub>에서 P<sub>4</sub>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sub>4</sub>가 아니라 Q<sub>4</sub>'로 된다면, 타인과 차별화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이겠군.

→ (나) 상품의 가격이 P<sub>3</sub>에서 P<sub>4</sub>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로 증가하는 것을 묻는다. 그 뒤 3문단 뒷부분에서 '소비자가 타인과 차별화되고 싶은 심리를 충족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⑤ D<sub>1</sub>과 D<sub>2</sub>, D<sub>3</sub>과 D<sub>4</sub>를 각각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개인의 수요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군.

→ 네트워크효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한 선지다. 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요곡선을 비교했을 때, 이 효과들의 핵심이 무엇임을 묻고 있고, 이는 1문단 첫 문장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에 제시되어 있다.

▶ 풀이 방향

→ 1번 문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지문의 단계는 '가격의 변동 → 효과 발생 → 수요량 변동'이다. '(가)는 가격이 내릴 때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경우 수요량이 덜 줄어들었구나.' 식으로 가야하므로 '수요량이 늘 때 가격이 이렇게 변하네!' 로 전도되어 생각하면 안 된다. 지문은 두 사례 모두 가격이 내릴 때를 주고, 이를 통해 그래프에서 가격이 내리는 경우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와 (나)는 각각 유행효과 또는 속물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때의 그래프로 이해하고 풀어야 한다.

0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 보기 정리

→ (가) 상품은 유행효과가 발생하는 상품이고, (나) 상품은 속물 효과가 발생하는 상품이다.

⑤ 해당 상품과 어울리는 상품을 묶음으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상품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줄인다.

→ 초점에서 벗어난 선지이다. 5번 선지의 전략으로는 유행효과가 발생하는 상품을 팔수도 없다. 지문의 두 소비 효과는 사람들이 물리는 여부가 중요한 것인데, 상품의 가격부담은 이 효과들과 관련이 전혀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상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무료 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한다.

→ 유행효과는 사람들이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구매를 촉진시켜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사게 만들면 되므로 옳은 내용이다.

② 유명인들이 해당 상품을 방송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줌으로써 상품의 소비를 대중적으로 확대시킨다.

→ 2문단 마지막 문장에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나 연예인을 동경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유명인이 사용할 때 소비자들 더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전략은 적절하다.

③ 가격 경쟁보다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속물효과가 발생하는 상품에는 높은 희소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가격보다 상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차별화한다는 것은 희소성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한 전략이다.

④ 해당 상품의 수량을 조절하여 상품의 시장 판매량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 ③과 같은 맥락이다. 해당 상품이 시장에 많이 풀리는 것을 막아 희소성을 유지하는 또 다른 적절한 전략이다.

10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③ 그 사람의 말에는 좋은 의도가 깔려 있었다.

→ '심리가 깔려 있는 경우'에 사용된 '깔려'는 '사상이나 감정, 생각 따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묻혀 있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오답 피하기]

① 내 가방에 깔려 납작해진 빵을 발견했다.

→ '무엇을 밑에 두고 누르다'라는 뜻이다.

② 할머니 집 마루에는 돛자리가 깔려 있었다.

→ '바닥에 퍼 놓다'라는 뜻이다.

④ 동네에는 그에 대한 소문이 짝 깔려 있었다.

→ '널리 퍼져 있다. 또는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이다.

⑤ 여기저기에 깔려 있는 돈만 해도 상당한 액수였다.

→ '돈이나 물건 따위를 여기저기 빌려주거나 팔려고 내놓다'는 뜻이다.

2013학년도 4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11

[출제의도]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⑤ 언어는 새로운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단어를 활용할 수 있다.

→ 이 글은 기존에 있던 명칭(단어)을 활용해 개념이나 의미를 비유적으로 새롭게 표현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는 새로운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단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 위 글의 논지에 부합합니다.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재 참고

■ 화제 제시 & 논지의 제한(이/그/저) & 대상제시[1] :

새로 부화된 병아리를 뜻하는 '햇병아리'가 경험이 없는 사람인 '풋내기'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면서 햇병아리는 풋내기의 의미까지 갖게 되었다.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개념을 다른 명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 2가지 대상 제시 대상[1], [2]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대상 [1] : '의미 사이의 유사성으로 명칭이 변이된 경우'

대상 [2] : '의미 사이의 근접성으로 명칭이 변이된 경우'

로 나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언어는 음성을 이용하여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 언어의 기호성과 관련된 진술입니다. 새로운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특성에 관한 내용과 대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입니다.

②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된 진술입니다. 새로운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특성에 관한 내용과 대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입니다.

- ③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세계관을 반영할 수 있다.  
→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관한 진술이다. 새로운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특성에 관한 내용과 대응하지 않으므로, 틀린 선지이다.
- ④ 언어는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현상을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 언어의 분절성과 관련된 진술이다. 새로운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특성에 관한 내용과 대응하지 않으므로, 틀린 선지이다.

## 12

### [출제의도]

개념을 이해하고 글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정답 맞히기]

- ⑤ n1이 s1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n2를 만들고 있다.  
→ [그림]부분의 내용의 대상[1]은 '의미 사이의 유사성으로 명칭이 변이된 경우'이다. 그림 아래 부분을 참고하면 의미 자질을 공통적으로 가지며, 원래 표현하고자 한 의미와 유사한 의미가 비유의 꼴이 되므로 은유가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선지 ⑤에서, '햇병아리'(n1)는 이미 존재하는 명칭 '푹내기'(n2)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새롭게 명칭 '푹내기'(n2)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이는 해당 대상[1]에 부합하지 않는 선지이므로 옳지 않다. 판단근거는 아래와 같다.

#### ▶지문 요점 분석

\*대상 [1] : '의미 사이의 유사성으로 명칭이 변이된 경우'

추상 : 어떤 의미(s1)를 가리키는 한 명칭(n1)이 있고 s1과 유사한 다른 의미(s2)가 있다고 하자. s2의 명칭(n2)이 없거나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 또는 비유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n1이 s2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미 사이의 유사성을 근거로 명칭이 변이되었다고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n1과 n2는 유의 관계에 있다.  
→ 두 명칭 n1과 n2의 관계를 묻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판단 근거는 [그림] 윗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문장에서 추론할 수 있다.

#### ▶지문 요점 분석

\* 어떤 의미(s1)를 가리키는 한 명칭(n1)이 있고 s1과 유사한 다른 의미(s2)가 있다고 하자. s2의 명칭(n2)이 없거나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 또는 비유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n1이 s2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미 사이의 유사성을 근거로 명칭이 변이되었다고 한다.

→ 따라서 '햇병아리'와 '푹내기'는 의미가 서로 비슷한 명칭으로 유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n1이 s2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경험이 없는 사람'을 '새로 부화된 병아리'에 비유했다. 따라서 n1이 s2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표현은 옳다.

- ③ s1과 s2 사이에는 공통의 의미 자질이 있다.  
→ '새로 부화된 병아리'와 '경험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무경험자'라는 공통된 의미 자질이 있다.

- ④ n1은 의미에 s2를 포함하면서 다의어가 된다.  
→ '경험이 없는 사람'이란 의미를 기존의 '새로 부화된 병아리'에 더하면서 명칭 '햇병아리'는 다의어가 된다. 다의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의어 :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말한다.

동음이의어 : 두 개 이상의 낱말이 우연히 소리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이 낱말들을 동음이의어라 한다.

(출처: 백과사전)

## 13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정답 맞히기]

- ③ ㄴ, ㄹ / ㄱ, ㄷ / ㄷ

#### ▶선지 요점 분석

이런 문제 유형은, 대상 A,B,C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의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A]공간적 관계, [B]시간적 관계, [C]인과적 관계 ㄱ부터 ㄷ까지의 명칭 변이는 공간적, 시간적, 인과적 근접성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각각의 선지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 ㄱ은 아침과 아침밥의 관계로, 아침이라는 시간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따라서 대상[B] 시간적 관계에 속한다.
- \* ㄴ은 국회의원사당이 여의도에 위치한다는 공간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따라서 대상[A] 공간적 관계에 속한다.
- \* ㄷ은 두렵다는 감정 때문에, 몸이 떨리는 인과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따라서 대상[C] 인과적 관계에 속한다.
- \* ㄹ은 1960년 4월 19일과 4.19혁명이라는 시간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따라서 대상[B] 시간적 관계에 속한다.
- \* ㄴ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상암동에 위치한다는 공간적 근접성에 근거한다. 따라서 대상[A] 공간적 관계에 속한다.

14

2013년도 7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④ 고흡수성 수지는 분자들이 그물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 고흡수성 수지의 특징에 관해 묻는 선지이므로, 지문을 읽으며 표시했던 고흡수성 수지 '정의와 부연설명'에서 답의 근거를 찾습니다.

▶교재 참고

■정의 & 부연설명 & 비교와 대조 (설명문의 요소) :
고흡수성 수지는 3차원 망상 구조, 즉 그물과 같은 물리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지문의 그림과 같은 망상 구조는 고분자 중합이라는 화학 반응을 이용해 만든다.
따라서 고흡수성 수지는 그물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옳은 선지이다.

[오답 피하기]

① 모세관 현상은 물의 흡수력을 감소시킨다.

▶교재 참고

■화제 제시 :
일반적으로 물질이 물을 흡수하는 원리는 모세관 현상과 연관이 있다.
■논지 제한(이/그/저) :
이는 물이, 가는 관을 따라 올라오는 현상으로 작은 구멍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다.
화제 제시와, 논지 제한 부분에서 모세관 현상을 "이는"을 통해 설명함을 알 수 있다. 작은 구멍들이 많으면 물을 잘 흡수하므로, 흡수력을 감소시킨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②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물질은 망상 구조를 가진다.
→ 선지를 읽고, 친수성 작용기 와 망상 구조의 관계를 떠올려야 한다.

▶교재 참고

■논지의 역점(열린반대) & 논지제한(이/그/저) :
그런데 망상구조만으로는 고흡수성 수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
망상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분자들은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물질과 망상구조를 가진 물질의 선후관계가 뒤바뀌어있으므로, 옳지 않은 선지이다.

③ 분자 사이에 공간이 넓어지면 전기적 반발력이 생긴다.
→ 선후관계가 잘못되었다.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 분자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다.

▶교재 참고

■논지 제한(이/그/저) :
그리고 친수성인 작용기들은 그물 결합 내에서 서로 전기적 반발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결합 내의 공간이 확대되어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게 된다.

⑤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는 압력을 견디는 힘이 강하다.
→ 고흡수성 수지를 서술하는 지문에서, 천연 펄프를 묻고 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고흡수성 수지와 천연 펄프의 관계일 것이고, 비교대조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교재 참고

■정의 & 부연설명 & 비교와 대조 (설명문의 요소) :
그물에 의해 형성된 구멍의 크기를 천연 펄프보다는 미세하게 만들 수 있어 자기 무게보다 수십 배의 양을 저장하는 천연 펄프나 천과는 달리 수천 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구멍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흡수 속도와 흡수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는 압력을 견디는 힘이 강하다고 확언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선지이다.

15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④ 사례를 들어 ㉠의 활용 분야를 자세히 보여준다.
→ 고흡수성 수지의 활용분야를 보여주기 위해 (예시, 사례)를 들은 부분은 지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시각 자료를 통해 ㉠의 구조를 보여준다.
→ 지문의 그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재 참고

■논지 제한(이/그/저) :
위 그림과 같은 망상 구조는 고분자 중합이라는 화학반응을 이용해 만든다.

②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시한다.
→ ㉠ 망상구조와 관련하여 논리를 적용하며 파악한 순서과정이 있다.

▶교재 참고

■순서과정 (설명문의 요소) :
먼저 분자들을 연결하여 긴 분자사슬을 만들고, 이 분자사슬의 중간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분자사슬을 연결해 주면 그물 모양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물을 단단하게 설계한다면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도 물을 보유할 수 있다.

③ ㉠이 ㉡의 형태를 지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이 ㉡의 형태를 지녀야 하는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곳 문제점[P]와 해결책[S]부분이다.

- \* 문제점[P] : 펄프나 면은 작은 구멍이 많은 섬유질로 되어 있어 흡수력이 뛰어나지만 일정량 이상이 되면 물을 더 이상 흡수할 수도 없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물이 새기도 한다.
- \* 해결책[S] :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고흡수성(高吸水性) 수지'이다.

▶교재 참고

■순서과정 (설명문의 요소) :

그물을 단단하게 설계한다면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도 물을 보유할 수 있다.

→ 일정량 이상이 되면 물을 흡수할 수 없고, 압력에 의해 물이 새기도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고흡수성 수지다. 이 고흡수성 수지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순서과정]을 통해 망상구조, 즉 그물구조의 형태를 지녀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의 특성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한다.

→ 화학반응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 다음 연결되는 논리, 순서과정속의 내용들이 과학적 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재 참고

■논지 제한(이/그/저) :

위 그림과 같은 망상 구조는 고분자 중합이라는 화학반응을 이용해 만든다.

16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② 친수성 작용기를 포함한 고분자 물질을 선박의 표면에 바르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겠어.  
 → 친수성 작용기를 포함한 고분자 물질을 선박의 표면에 바르면 작용기들의 그물결합 내에서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 공간이 확대되어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선박의 표면의 고분자 물질이 물을 흡수하여 부식을 방지한다는 선지의 내용은 옳지 않다.

▶교재 참고

■논지의 역점(열린반대) & 논지제한(이/그/저) :

그런데 망상구조만으로는 고흡수성 수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 망상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분자들은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 주로 히드록시기(-OH)나 카르복시기(-COOH) 이온화가 쉽거나 물과의 수소결합이 가능한 작용기를 갖춘 분자들을 중합하는 방법으로 망상 구조를 만든다.

(다음은 판단근거이다.)

+ 그리고 친수성인 작용기들은 그물 결합 내에서 서로 전기적 반발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결합 내의 공간이 확대되어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게 된다.

[오답 피하기]

- ① 장마철에 습기를 제거하려고 구입한 제습제에는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 있을 거야.
  - ③ 아기들이 착용하는 기저귀에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하면 최적의 흡수력을 얻을 수 있겠어.
  - ④ 망상 구조가 단단하게 설계된 꽃꽂이용 밑판은 더 많은 수분을 꽃에 제공할 수 있을 거야.
  - ⑤ 물기 제거를 위한 청소용 스펀지는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로 제작할 수 있겠어.
- ① ~ ⑤ 선지들의 공통점은 [습기제거 + 흡수력 + 물기제거]이다. 고흡수성 수지의 '물 저장 & 흡수'의 특성과 부합하므로,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다.

판단근거는 아래 고흡수성 수지의 정의와 부연설명이다.

▶교재 참고

■정의 & 부연설명 & 비교와 대조 (설명문의 요소) :

고흡수성 수지는 3차원 망상 구조, 즉 그물과 같은 물리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물에 의해 형성된 구멍의 크기를 천연 펄프보다는 미세하게 만들 수 있어 자기 무게보다 수십 배의 양을 저장하는 천연 펄프나 천과는 달리 수천 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구멍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흡수 속도와 흡수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006학년도 4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17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⑤ 위그선과 초고속선은 수중 날개가 있어 비슷한 속력을 낼 수 있다.  
 → 관련 내용은 3문단에 있다. 수중날개는 초고속선이 갖고 있지만 이러한 날개를 위그선이 갖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위그선이 초고속선보다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위그선과 항공기는 운항 영역 및 고도에 차이가 있다.
  - 6문단에 따르면 항공기와 운항 영역 및 고도가 다르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장비들이 일반 항공기와 같을 필요가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위그선은 날개가 있는 배로 일반적인 배보다 속도가 빠르다.
  -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위그선은 바다에 접촉하지 않아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보다는 물론 초고속선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 ③ 위그선은 초고속선보다 더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
  - 3문단에서 다루고 있다. 위그선은 초고속선보다 매우 빠르고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효율이 점점 높아지는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위그선이 초고속선보다 더 효율적인 운송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위그선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 4~6문단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7문단에서 위그선의 실용화를 위해 많은 연구와 협력이 있어야함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18

[출제의도]

관련 자료와 연관 지어 적용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 ④ ㉔가 해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양력이 증가되어 에너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겠군.
  - 2~3문단에 따르면 위그선은 해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와류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양력이 증가되어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므로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 ① ㉔는 항공기의 구조와 비슷하므로 실용화를 위해 항공기에 쓰이는 소재를 써야겠군.
  - 5문단에 서술되어 있다. 항공기와 달리 위그선은 해면에 가깝게 운항하기 때문에 선체를 이루는 소재도 항공기와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㉔는 와류를 이용하여 배를 목적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군.
  - 와류는 2문단에서 언급되어 있다. 와류로 인해 일반적인 배는 전진하는 데에 많은 에너지가 드는 반면에 위그선은 와류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위그선이 와류를 이용한다는 것은 틀린 진술이다.

- ③ ㉔는 해수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신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것이 좋겠어.
  - 5문단에 따르면 위그선은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소재가 아닌 금속소재를 이용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㉔에서 파랑이 일어도 위그선의 운항에는 별 지장이 없겠군.
  - 관련된 위그선의 한계는 4문단에 서술되어 있다. 위그선은 파랑이 없을 시엔 이착수할 수 있지만 파랑이 있을 시엔 이착수할 방법이 거의 없으므로, 위그선의 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틀린 설명이다.

19

[출제의도]

단어의 조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 ④ 원근감(遠近感)
  - 원근감에서 원근은 반의관계이므로 (1)이 성립된다. 하지만 원감이라는 단어나 근감이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는다. 즉,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이므로 답은 ④번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냉온수(冷溫水)
  - 냉온수는 냉수+온수로 이루어 졌으며 냉수와 온수는 반의 관계이므로 (1)이 성립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어이며 합쳐져서 공통어휘 '수'가 생략되므로 (2)가 성립한다. 따라서 적절한 어휘이다.
- ② 장단점(長短點)
  - 장단점은 장점+단점으로 이루어져 (1)이 성립되고 각 단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어이며 합쳐져서 공통어휘 '점'이 생략되므로 (2)가 성립된다. 따라서 적절한 어휘이다.
- ③ 등하교(登下校)
  - 등하교는 등교+하교로 구성되었다. 각 단어는 반의관계이므로 (1)이 성립되고 두 단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어이며 합쳐져서 공통어휘 '교'가 생략되므로 (2)가 성립한다. 따라서 적절한 어휘이다.
- ⑤ 출입구(出入口)
  - 출입구는 출구+입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어는 반의관계를 가지므로 (1)이 성립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합쳐져서 공통어휘 '구'가 생략되므로 (2)가 성립한다. 따라서 적절한 어휘이다.

20

[출제의도]

정보에 맞는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③ 교각 등과 같은 장애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그선

→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으로, 정답이다.

\* 교각: 다리를 받치는 기둥.

[오답 피하기]

① 파랑이 없는 수면에서의 이착수가 가능한 위그선

→ 4문단에서 해수면에 파랑이 일지 않으면 위그선은 이착수를 할 방법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옳은 선택지이다.

② 시속 100km~500km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위그선

→ 위그선의 장점이므로 3문단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위그선은 시속 100km에서 시속 500km까지 빠른 속도를 갖고 운행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옳은 선택지이다.

④ 수면과의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운항할 수 있는 위그선

→ 위그선의 장점으로 3문단에 따르면 위그선은 수면의 마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로 인해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데 그 속도가 시속 100km에서 시속 500km까지 이른다. 옳은 선택지이다.

⑤ 하부선체의 구조 강도를 높이면서도 경량화가 가능한 위그선

→ 위그선은 수면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해수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하부 선체가 높은 강도를 가진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금속소재와 신소재를 적절하게 사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한 선택지이다.

④ 순수미술과 공예의 차이점 - 대상을 다루는 방식을 중심으로

→ 순수미술과 공예의 차이를 서술한 내용은 지문에 있다. 그 자체로 내재한 아름다움인지, 외적 목적을 가지는 지 따위를 설명했으나, 대상을 다루는 방식과 관한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근대 예술철학이 말하는 순수미술은 한 번 다루게 되면 순수미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제목이다.

⑤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 시대와 공간에 따라

→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맞는 서술이다. 공예도 예술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으니 관점이 넓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것의 시대와 공간에 따른 변화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전통적인 도제, 길드에서 현대 공예로 바뀌었다고 시대는 말할 수 있겠으나, 공간은 설명하기 어렵다.

2012학년도 7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21

[출제의도]

제목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③ 공예에 대한 새로운 시각 - 스튜디오 공예가 보여주는 가능성

→ 주제를 잘 집약한 제목이다. 스튜디오 공예가 이 지문의 핵심적인 키워드임은 물론, 새로운 시각은 그 의의에 중요한 축이므로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① 공예 개념의 확장 - 형태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 공예 개념의 확장보다는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던 공예가 미적 의도를 담을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술의 확장'이 더 적절하다. 형태에서 이미지로 변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② 순수미술의 상징성 - 시각적 이미지의 재구성

→ 이 지문은 순수미술보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간주되었던 개념인 비예술-공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물론 시각적 이미지가 재구성된 것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제목이 되기 어렵다.

22

[출제의도]

대상의 특징을 추리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④ ㉠은 ㉡과 달리 공예의 전통에서 벗어남으로써 관람자와의 미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 스튜디오 공예는 기존의 형식을 깨고 미적 의도와 가능성을 담았다. 그리고 2문단에서 순수미술이 의사소통이라고 한 것처럼, 공예가 순수미술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예술이 되며 관람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해 낼 수 있게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에서는 공예가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 공방 공예에서는 자신만의 창조적인 개성을 펼칠 수가 없었다고 3문단에 나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은 예술로 인정받기 위하여 대상의 외적 목적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을 것이다.

→ 스튜디오 공예는 오히려 기능, 외적 목적과의 연관성을 제거하여 예술로 인정받는 데 가까워졌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은 ㉡과 달리 기능과 예술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공방 공예는 기능만 충족시켰고, 스튜디오 공예가 기능과 예술성을 충족시키는 가능성을 열었으니, 옳은 설명이다.

⑤ ㉠과 ㉡은 모두 작가의 미적 의도를 관람자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공방 예술은 기능만 충실히 해내면 되는 것이다. 이 선지의 설명은 스튜디오 예술에만 유효하다.

## 23

### [출제의도]

대상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

### [정답 맞추기]

⑤ 대상의 기능에 새롭게 접근하여 예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대상의 기능이 존재하지만 이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연관성을 끊는 형식으로 예술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둘 모두에게 해당되는 설명이다. 정답이다.

### [오답 피하기]

① 기성 제품을 재활용하여 익숙한 주제를 드러냈다.

→ '다다익선'이 TV 모니터라는 기성 제품을, '뿔(Spike)'이 뿔이라는 기성 제품을 재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원리나 바구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익숙한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제와도 거리가 멀다. 틀린 설명이다.

② 관람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 두 작품 모두 관람자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유도한 부분은 없다. 그러나 지문 2문단에서 예술 작품과 관람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용하여 '다다익선'과 '뿔(Spike)'이 예술품이 되며 관람자가 참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대중 매체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 두 작품 모두 실험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기존 전통을 뒤엎는 시도인 만큼 실험적이지만, 대중 매체의 특징을 부각한 것은 '다다익선'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뿔(Spike)'에는 적용할 수 없는 설명이다.

④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관람자에게 친근함을 주고 있다.

→ 두 작품 모두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은 물론 친근감을 주지도 않았다. 틀린 설명이다.

'수능 국어와 교육', 읽다, 그리고 사유하다  
국어강사 심찬우

1. ②	2. ③	3. ③	4. ①	5. ④
6. ②	7. ⑤	8. ③	9. ③	10. ①
11. ①	12. ①	13. ⑤	14. ⑤	15. ③
16. ②	17. ①			

2007학년도 3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01

[출제의도]

[정답 맞히기]

② (가)와 (다)는 모순 어법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가)에서 '나는 향기로운 너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너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를 보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의 절대성이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향기로운 말소리라면 달콤해서 귀가 뚫려야 하고 너의 얼굴이 '꽃'답다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번쩍 떠야하는데 말소리에 귀먹고 얼굴에 눈멀었다고 표현했으니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즉 모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화자가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아마도 너의 말소리가 너무도 향기롭고 너의 얼굴이 너무도 꽃답기 때문에 즉 너의 아름다움이 절대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 (다)에서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연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를 보면 파발의 파들이 오래되어 시들고 그래서 붉은 빛을 띠는 사이 사이로 새로운 푸른 새싹이 돌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붉은 파발'은 '소멸 혹은 죽음'을 의미하고, '푸른 새싹'은 '생성 혹은 생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글의 맥락상 '붉은 파발'은 '묵은 사랑'에, '푸른 새싹'은 새로운 사랑을 뜻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묵은 사랑이 끝나갈 때(혹은 '끝나야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묵은 사랑을 떨쳐 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서로 모순되는 '얻음'과 '잃음'을 함께 나열하고 있기에 모순적 어법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와 (나)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가)에서는 '푸른 산빛', '단풍나무 숲'등 자연물을 활용하기는 했으나 인간과 자연의 대립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나)에서도 '은빛 바다', '푸른 하늘 빛'등 자연물이 드러나지만 인간과 자연의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나)와 (다)는 재회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나)에서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동구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를 보면 '멍하니'를 통해, 다시 올 수 없는 지난날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다려 본다'의 의미가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혹은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를 화자가 실제로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첫사랑도, 다른 많은 추억도 이미 지나간 것들이기에 결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화자가 모를 리 없음에도, '돌아올 것만 같아'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지난 일들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와 관련하여 재회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에서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연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를 보면 '재회'는 기존의 대상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랑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2)번 해설 참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재회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 (나), (다) 모두 시상의 흐름이 바뀌면서 어조가 변하고 있다.

→ (가)에서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를 보면 '그러나'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어서 '~습니다.'라는 어조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에서는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조 또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에서는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는 부분이 없고 '~보아라 ~ 것이다'의 어조가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⑤ (가), (나), (다) 모두 화자 자신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가),(나),(다) 전부 화자 자신뿐만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02

[출제의도]

[정답 맞히기]

③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 정호승, '또 기다리는 편지' -

→ (가)의 '①가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몹서리쳤다'를 보면 화자와 함께 하던 많은 것들이 화자를 떠나가고 누런 모래둔과 어두운 화자의 마음만이 남았다. 이를 통해 화자의 외로움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호승 시인의 '또 기다리는 편지'의 화자 또한 외로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기에(아래 또 기다리는 편지 해설 참조) ①과 '또 기다리는 편지' 모두 화자의 외로움의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할 수 있다.

### 03 (%)

#### [출제의도]

#### [정답 맞히기]

‘붉은 파발’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붉은 파발’은 새싹이 돋아나는 장소잖아. 이것은 묵은 것과 새싹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소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걸 거야. …… ③

→ (다)에서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를 보면 비록 현재 상황에서는 ‘파발’에는 ‘붉게 변색된 파’와 ‘파의 푸른 새싹’이 함께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멸과 죽음의 붉은빛’은 사라질 것이고, ‘생성과 활력의 푸른 빛’은 풍부해질 것이다. 따라서 ‘붉은 파발’은 소멸의 붉은빛이 사라지고 생명의 푸른빛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기에, ‘붉은 파발’과 관련하여 묵은 것과 새싹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삶은 계란의 껍질’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로 아래 행에서 ‘~ 듯’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묵은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 거야. …… ①

→ (다)에서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에서 ‘A 할 듯 B 할 때’라는 문장 구조를 통해 A가 B에 대한 비유적 표현임을 즉 ‘삶은 계란의 껍질’이 ‘묵은 사랑’에 대한 비유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왜 ‘벗겨 내야할 때’가 아니라 ‘벗겨질 때’라고 했을까?

‘벗겨 내야할 때’와 ‘벗겨질 때’는 강제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잖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억지로 떨어져 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떨어져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그랬을 거야. …… ②

→ (다)에서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를 보면 ‘벗겨질 때’로 표현함으로써, ‘벗겨 내야할 때’라고 표현했을 경우보다 ‘벗겨짐’의 자연스러움이 잘 전달되고 있다. ‘묵은 사랑’이 끝나는 과정이 억지로 힘겹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의 관계를 말한 것 같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것을 잃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거야. …… ④

→ (다)에서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를 보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것을 잃어야만 한다는 화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연의 구성 방식을 거의 동일하게 한 이유는 뭘까?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주면서도 화자 자신의 생각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 ⑤

→ (다)에서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를 보면 각 연이 ‘~듯(이) 묵은 사랑이 ~할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이다’라는 형태를 반복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시상을 안정적으로 전개해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의 동일한 구성 방식의 이러한 반복을 통해, 새것을 얻기 위해서는 묵은 것을 잃어야 한다는 화자의 생각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4

#### [출제의도]

#### [정답 맞히기]

① ③와 ⑥은 모두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 (가)에서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③[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에서 ‘차마’는 ‘부끄럽거나 안타까워서 감히’라는 뜻의 ‘부사’인데, 본 행에서는 ‘떨치고 갔습니다’와 관련하여,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길’은 님이 나를 떨치고 간 공간이기에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나)에서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혼자 때 없이 그 ⑥[길]을 넘어’에서 ‘길’은 소년 화자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죽음 및 첫사랑과의 이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간이기에,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2016학년도 7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 05

#### [출제의도]

#### [정답 맞히기]

④ ‘총수’는 비단잉어들이 죽은 이유에 대한 ‘유자’의 대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지 문>

“글썄유, 아마 밤새에 고뽕이 들었던 개비네유.”  
유자는 부러 탄성을 하였다.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두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 비단잉어가 죽은 이유를 유자는 ‘고뽕(감기)’라 하자, 총수는 ‘유자가 마치 혐의자’인 듯 ‘화풀이’를 하려고 했다. 대답을 들은 이후

유자에 대한 총수의 태도는 매우 못마땅하다 할 수 있으므로 ④는 옳은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① '나'는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알고 있었다.

<지 문>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나의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 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 이 부분에서 유자는 회사 직원들의 봉급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노파'는 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유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 문>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

쌀이나 연탄을 들여 줄 때는 회사에서 으레 그렇게 돌봐 주는 것이거나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 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 유자가 굴비(반찬거리)를 가져온 것은 유자가 노인의 집에 반찬거리가 부족한 것을 생각해서 산 것 뿐이지 노인이 반찬거리를 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③ '스페어 운전자'들은 그들의 자질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별이가 좋았다.

<지 문>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자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별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미와 단칸 셋방에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 버려 어린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 지문에서 스페어 운전수는 자질을 떠나서 궁핍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별이가 시답지 않다, 셋방에 산다, 딱한 사정...) 따라서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⑤ '유자'는 그룹 내 '동료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적당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 문>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자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 유자는 가해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적당주의를 취한 적이 없었으므로 ⑤는 틀린 설명이다.

06

[출제의도]

[정답 맞히기]

② [B]는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지 문>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 두 부분에서 서술자가 유자의 행동과 심리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시점에서 유자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A]에 대화가 등장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지만, 등장인물들이 상대방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장면은 없다. 다각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다양한 생각)에서 분석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없으므로, ①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A]와 [B]는 모두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A]

→ 현재의 사건을 드러내고 있지만 과거의 사건을 교차해서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전개될 사건(어류 폐사)의 단서가 없기 때문에 [A]는 틀린 설명이다.

▶[B]

<지 문>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 유자는 현재(비탈길을 다 내려온 때) 노인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다는 사실(과거의 사건)을 떠올렸다. 그 직후 유자는 반찬거리를 사고 다시 노인의 부엌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을 보아 [B]는 현재에서 과거의 사건을 교차해서 보여주어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가 옳지 않으므로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④ [A]와 [B]는 모두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A]

→ ‘회상’은 단순히 과거의 장면을 서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회상은 ‘현재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으로 과거 장면의 서술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는 서술자가 의식 내에 있는 과거 장면에서 체험하는바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A]에는 과거 장면을 단순히 서술만 하기 때문에 회상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지문 내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A]는 틀린 설명이다.

▶[B]

→ [B]를 회상이라 할 수는 있으나, 인물 간의 갈등이 없으므로 원인으로 [B]를 통해 알 수 없다.

따라서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⑤ [A]는 주인공의 부정적 측면을, [B]는 주인공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여 인물의 이중적인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A]

→ 유자의 행동 중 유일하게 서술자가 부연 서술했던 ‘그 회사 직원들의 ~ 볼까 말까 한 값입니다.’를 통해 유자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B]

→ 유자가 봉사한 장면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유자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 맞다.

그러나 [A], [B] 모두 주인공의 이중적 성격을 부각시킨 부분은 없으므로 ⑤는 틀린 설명이다.

07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⑤ 총수의 운전수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처지가 바뀌고 나서야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자는 평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군.

→ 유자가 허영과 사치를 싫어하고 수의 운전수일 때부터 교통사고 담당 업무원이 될 때까지 일관되게 불의를 싫어하고 선행을 베풀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면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인간성을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① 유자가 사용하는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통해 토속적인 느낌과 인물에 대한 정감을 주고 있군.

→ 지문 내에서 유자는 방언(웁다, 월매짜리 고기간디고려?)과 익살스러운 표현(뽕어낸뽕도, 차에코풀고싶어)을 구사하며 토속적인 느낌과 인물에 대한 정감을 주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유자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인정미 넘치는 모습을 통해 인간적 도리를 실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유자는 처지가 딱한 스페어 운전수들에게 식량과 연탄을 주고 홀로 사는 노인에게 굴비(반찬)를 사주는 등 선행을 통해서 인정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유자에 얽힌 일화들을 소개하여 그가 한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의 형식을 빌려 온 것이라 할 수 있군.

→ 총수와 얽힌 일화와 유자의 봉사정신과 관련된 일화를 나란히 보여주면서 유자의 행적을 낱말이 보여주면서 전의 형식을 빌려왔다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총수의 사치와 허영심에 대한 유자의 불만스러운 태도를 통해 산업화 시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군.

<지 문>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깐 여러 가지루다 객고가 뽕어서 조시두 안 좋았을 테구…… 그런디다가 부릇쓰구 지루박이구 가락을 트는 대루 디립다 취뎡으니깐 과로해서 몸살끼두 다소 있었을 테구……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덜일수록이 다 다 탈이 많은 법이니깐…….”

→ 유자는 회장의 비단잉어가 폐사하고 유자를 죄인 보듯 바라보고 잉어를 증시하는 총수에게 위와 같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유자는 위의 말을 통해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언어이해

08

[출제의도]

[정답 맞히기]

③ [B]는 사건을 작중 상황 안에서 목격하는 인물과 그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서로 다르다.

→ 작중에서 사건을 목격하는 인물은 지연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사건이 서술되는데, 이는 만약 지연이 명식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잔잔한 목소리가 '들렸다'와 같이 서술되어야 하는데 음성의 존재에 관한 서술을 할 뿐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인물 자신이 보고 들은 사건을 주관적 시각에서 직접적으로 서술한다.

→ [A]는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명식의 내부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명식이 직접 서술하지는 않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A]는 인물의 독백적 발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생생하게 제시한다.

→ [A]는 서술자가 명식의 심리를 서술한 것일 뿐 명식이 독백적 발화를 통해 심리를 제시한 것이 아니다. 독백이었다면 '자기 변신의 연극기' 대신 '나'라고 하였을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④ [B]는 작중 상황 안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여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추측해서 전달한 경우 심리에 대한 서술(예: 외로운, 쓸쓸한)이 나와야 하는데 [B]에서는 음성이 잔잔하다고만 한다. 이를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틀린 설명이다.

⑤ [B]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작중 상황 밖에서 전달하다가 작중 상황 안으로 이동하여 전달한다.

→ 작중 상황 안으로 이동하여 전달한다는 것은 서술자가 그 상황에서 명식에게 직접 '명식은 아직 변장을 ~ 잔잔한 음성이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B]는 서술자가 명식의 현재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09**

**[출제의도]**

**[정답 맞히기]**

③ ㉔ : '명식'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지 문>**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계단을 내려오는 기척이 없었다. 지연은 불쑥 상서롭지 못한 예감이 들었다. 술이 너무 지나쳤나 싶기도 했고, 그런 일이 워낙 처음이라 다른 심상찮은 번고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했다.

→ 지연은 2층에 오르기 전 그가 술에 너무 많이 먹었나 생각하기도 했고 번고가 생길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2층으로 올라간 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명식을 보고 든 생각이니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3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① ㉓ : 귀가할 때 다른 가면을 지어내는 '명식'에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

→ 귀가할 때 다른 가면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연에게 있어서 맨 얼굴로 있는 명식이 불편하다는 것을 불편스런 가면이 있다고 느껴진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틀린 설명이다.

② ㉑ : 가면을 쓴 '명식'과의 대화가 누차 반복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가면을 쓴 명식과는 대화를 나눈적이 있었지만 대화가 반복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변장을 하고 있는 그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이다.

**<지 문>**

어떤 분명한 의미가 담긴 말이었다. 지연은 감히 명식의 곁으로는 갈 수가 없었다. 공연히 그가 두려웠다. 변장을 하고 있을 그의 얼굴을 만나 버리기가 두려웠다. 그녀는 명식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등 없는 동굴의자 위로 몸을 주저앉혔다.

→ 지연은 변장한 명식의 모습을 만나기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④ ㉒ : 타인들의 시선 때문에 낮에도 변장을 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 문>**

이렇게 불을 끄고 앉아 있으니 밤이 좋군. ㉒ 대낮은 얼굴이 너무 따가워서……

→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㉒을 언급한 이유는 자신이 왜 밤을 좋아하는가에 답을 하기 위함이지 낮에 왜 변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10**

**[출제의도]**

지문에서 정의한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① ㉑는 아래층 인물이 위층 인물을 전과 달리 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지 문>

이윽고 지연에게도 한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명식을 만나고 싶은 밤의 소망은 반드시 그의 가면을 연상시켜 주곤 했다. 지연은 명식의 가면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 지연(아래층 인물)은 가면 뒤에서 피곤함을 씻은 후 지연을 찾아 내려오는 명식(위층 인물)에게 위 지문과 같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으므로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② ㉓는 위층 인물이 자신의 가면을 보여 주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

<지 문>

그러나 지연은 그토록 익숙해진 명식의 가면을 아직도 똑똑히 본 일이 없었다.

→ 명식(위층 인물)은 2층에서 내려갈 때 자신의 가면을 지연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명식이 자신의 가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2층에서 내려갔다는 진술은 적절치 않다.

③ ㉓는 위층 인물이 일상의 고단함을 탈피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

→ 명식이 일상의 고단함을 탈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은 2층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2층 서재로 올라가서 가면 뒤에서 휴식을 취하는 행동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④ ㉓는 아래층 인물의 내적 욕망과 행동의 괴리가 일어나게 한다.

<지 문>

결국 자기가 먼저 침대를 내려오고 말았다. 여자가 먼저 남편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간 쑥스럽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녀는 명식을 살피고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 지연(아래층 인물)의 내적 욕망과 행동이 괴리가 일어났으면 지연은 올라가지 못했어야 하지만, 지연은 2층으로 올라갔으므로 내적 욕망과 행동의 괴리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⑤ ㉓는 아래층 인물이 부부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지 문>

여자가 먼저 남편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간 쑥스럽지 않았지만

→ 이 문장에서 지연은 여자가 남편을 찾는 것이 쑥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지연(아래층 인물)이 전통적 관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적 가치관(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11

[출제의도]

[정답 맞히기]

① '지연'이 '명식'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의자에 앉은 것은 '명식'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 <보기>에 따르면 명식은 가면을 쓰는 행동(변신)으로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연이 명식과 떨어져 앉은 이유는 명식이 참된 자아를 발견할까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변장을 한 그의 얼굴을 통해 그가 가진 갈등과 마주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② '명식'의 밤 외출이 잦아지는 것은 현실 세계와의 불화로 인하여 갈등이 고조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다.

→ 밤 외출은 명식이 현실에 괴로움을 느낄 때 그를 풀어주는 일시적 방편이다. 밤 외출이 그만큼 잦아진 것은 그의 현실과의 갈등이 그만큼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명식'이 가면의 눈물은 속으로만 흐른다고 말한 것은 참된 자아를 숨긴 채 살아가는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이다.

→ 가면은 자신의 자아를 숨기고 그의 갈등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존재이다. 그의 가면 뒤에 흐르는 눈물을 말한 것은 가면 속의 자아가 흐르는 눈물의 존재를 자신의 언어로 내뱉은 것이다. 따라서 가면의 눈물은 참된 자아를 숨긴 채 살아가는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명식'의 가면을 똑똑히 보지 않고도 그를 기다리는 '지연'의 행위는 '명식'의 상상적 희망을 자기화한 것이다.

→ <보기>에서 변신은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갈등의 일시적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명식은 변신을 하면서 자신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식의 가면을 보지 않고 그의 가면을 기다리는 행위는 그가 드러내는 상상적 희망(갈등의 크기, 가면)을 자기화한 것이라 말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⑤ '명식'이 가면을 쓴 자신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그가 일시적 속임수에 도취되었음을 의미한다.

→ 명식이 가면을 쓰지 않았던 것처럼 느낀 것은 가면이 마치 자신의 얼굴, 즉 자신의 자아가 되었다는 것처럼 생각하여 변신이 자신의 참된 자아가 된 것 같았다는 생각을 들게 한 것이다. 그러나 <보기>에서 가면(변신)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그는 일시적 속임수에 도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6학년도 4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12

[출제의도]

서술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 ①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지문에서 시대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런 서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 ② 대화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대사가 성진의 죄를 알고 꾸짖자 성진은 변명을 늘어놓는다. 대사가 이를 듣고 성진을 풍도에 보내고, 그를 인간세상으로 보낸다. 성진이 인간세상으로 가게 된 원인이 그 대화로 드러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 전기적 요소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나 현상을 말한다. 육관 대사가 석장을 들자 구름이 일어나 양소유를 성진으로 변신시키고 장소가 인간세상에서 연화도량으로 변한다, 이는 전기적 요소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인물의 말을 통해 과거의 행적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양소유가 육관 대사와 대화를 하다 자신의 인생사를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 문>

‘성진이 여덟 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자못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 성진이 용궁에 갔다 온 후 속세에 대한 생각과 ‘부처 공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자가 말이 아닌 내적 독백으로 제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1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 ⑤ ㉔의 향로의 ‘불’은 주인공의 입몽에서 각몽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경과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지 문>

향로에 불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㉑염주를 고르며 일천 부처를 염하더니, 홀연 창 밖에 동자가 부르되,

.....  
말을 떨구지 못하여서 구름이 견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남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 지라. 정히 경황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도되 ㉔향로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 입몽하기 전 불이 피워 진 향로가 입몽 한 후에는 불이 꺼져있다. 이는 작가가 불의 소멸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 ① ㉑의 ‘염주’는 주인공이 겪게 되는 꿈속의 경험을 부각하는 소재이다.  
→ 염주는 성진이 정신을 차리고 불교 공부에 집중한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등장한 소재이다. 중략 이후의 ‘꿈’ 내용에서 염주가 언급되었지만 이는 꿈속의 경험을 부각시켰다고보다 각몽되었다는 것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㉒의 ‘등촉’은 주인공이 꿈에서 깨어난 후 득도할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 각몽 후 등촉에 대한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략 이전에도 등촉이 각몽 이후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으므로 양소유가 꿈에서 깨어난 후 득도할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㉓의 ‘섬돌’은 주인공의 입몽과 각몽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지 문>

대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황건역사가 어디 있느냐?”  
홀연 공중으로부터 신장(神將)이 내려와 청령하거늘 대사가 분부하되,  
“네 죄인을 영거(領去)하여 풍도\*에 가 교부(交付)하고 오라.”

[중략 부분 줄거리] 풍도로 끌려 간 성진은 양 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환생하고, 함께 환생한 팔 선녀와 차례로 인연을 맺게 되고 높은 벼슬에까지 오른다. 벼슬에서 물러나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두 부인과 여섯 남자를 거느리고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 성진의 입몽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섬돌이 아닌 풍도이고 각몽이 이루어지는 장소 역시 섬돌이 아닌 ‘뒷동산’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④ ㉔의 '막대'는 주인공이 꿈꾸기 이전보다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소재이다.

<지 문>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더니, ㉔홀연 석경에 막대 던지는 소리 나거늘 괴이히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더니,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더라.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알.

→ 석경소리는 입몽 후 주인공이 수련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자극하기보단 육관대사가 자신이 왔다는 것을 성진에 알리는 신호에 더 가까우므로, 틀린 설명이다.

14

[출제의도]

서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⑤ '성진'이 '두 공주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을 떠올리는 것에서 ㉔의 성진이 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두 공주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하룻밤 꿈'이라고 했으므로, 중략 이후의 성진은 세속적 가치에 회의를 느끼고 천상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① '여덟 선녀'를 만난 것을 계기로 '성진'의 상태는 ㉔에서 ㉔로 변했다고 볼 수 있겠군.

<지 문>

성진이 여덟 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자못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아가 세상에 나 어려서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 요순 같은 임금을 만나, 나면 장수 되고 들면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띠고 옥궐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恩澤)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이 후세에 드리움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문과 일백 여덟 날 염주뿐이라.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 이는 성진이 8 선녀를 만난 후 천상적 가치를 지키기 보다는 천상적 가치를 회의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성진'이 '부처의 법문'을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문과 일백 여덟 날 염주뿐'으로 생각한 것에서 ㉔를 확인할 수 있겠군.

③ '승상'이 '십육 세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었'다는 것은 ㉔의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양소유가 16살에 급제해서 승상이 된 것은 양소유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㉔의 '소유'는 '호승'과의 만남을 계기로 천상으로 회귀하게 되었겠군.

→ 소유는 승상에서 물러난 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고 중략 부분 줄거리에 서술되어 있으므로 중략 이후의 양소유는 지상의 가치에 (-)를 나타낸다. 또한 중략 이후 양소유는 호승을 만난 후 연화도량, 천상계로 돌아가게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16학년도 10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15

[출제의도]

구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③ ㉔:과거 회상을 통해 자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 문>

㉔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스스로 규방 속에 들어가 끝내 정절을 지켜서 무도한 재앙을 피하였습니다.

→ 여인은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자책감이 드러나 있는 표현은 하지 않았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① ㉔:반복되는 행동에 담긴 양생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지 문>

㉔ 그는 달 밝은 밤이면 언제나 객회(客懷)를 억누르지 못하여 나무 밑을 거닐곤 했는데

→ '달 밝은 밤'이 될 때마다 양생은 나무 밑을 걸으면서 객회(객지에서 느끼는 울적하고 쓸쓸한 느낌)를 억누르는 것으로 보아 양생은 매우 외로운 감정을 느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㉔: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여인의 외양을 드러내고 있다.

<지 문>

㉔ 화장을 곱게 한 얼굴이 마치 채운(彩雲)을 타고 내려온 월궁의 선녀와 같고

→ 얼굴을 '채운을 한 월궁선녀'에 비유를 했으니 비유적 표현을 이용해 외양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㉔:과장된 표현을 통해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 문>

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뉘은 녹아 없어지고, 여름밤 겨울 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 '뉘이 없어지고', '애간장이 찢어진다.'는 과장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㉔ 뒤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를 통해 ㉔의 화자는 연인을 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태이고 ㉔은 자신의 소원의 절실함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표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⑤ ㉕:되묻는 방식을 통해 양생의 의중을 확인하고 있다.

<지 문>

㉕ "저도 역시 사람입니다. 저를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만 좋은 배필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 양생은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셨소?"라고 물었기에 되묻는 방식이라 할 수 있고, '당신은 다만 좋은 배필을 얻으려는 것이지요?'라는 말을 통해 양생의 의도를 넉넉히 물어보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16

[출제의도]

시의 표현과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비교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② ㉓는 ㉒와 달리 자연물에 감정을 투영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시 두수에서는 '배꽃나무', '비취새', '원앙' 등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감정(외로움)을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㉓에서는 자연물이 등장하지 않고 감정표출보다는 자신의 소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므로 ㉒와 달리 ㉓에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오답 피하기]

① ㉓는 ㉒에 비해 화자의 다양한 소망이 열거되고 있다.  
→ 시 두수에서는 화자의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고 축원에서는 여인을 얻게 해달라는 소망이 담겨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 ㉓는 ㉒에 비해 본심을 숨긴 채 우회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 '제 소원인 어여쁜 아가씨를 얻게 해주시옵소서.'를 통해 양생의 소원은 여인을 얻게 해달라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④ ㉓는 ㉒와 달리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암시하고 있다.  
→ 축원에서는 소망만 드러나 있을 뿐 부정적인 전망이 드러나 있는 표현은 나타나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시 두 수에서도 역시 부정적인 전망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㉓와 ㉒는 모두 가정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㉓에서는 화자의 외로움을 자연물에 투영하고 있을 뿐 가정적인 상황은 설정하지 않았고 강한 의지는 더욱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에 ㉒에서는 '만약 ~한다면'을 통해 가정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반드시 제 소원인~'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1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

[정답 맞히기]

① 양생이 부처님에게 저포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군.  
→ 양생이 부처에게 저포놀이를 제안한 것은 자신의 소원을 초월적 존재에 기대어 이루고자 하는 것일 뿐, 환상계와 현실계의 대립은 나타나있지 않으므로 대립을 해소한다는 표현도 옳지 않다.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② 양생과 여인이 서로 만나 즐거움을 나누는 곳이라는 점에서, 만복사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 환상 세계의 존재가 교류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겠군.  
→ 지문 뒤에 나오지만 여인은 귀신이다. 따라서 여인은 환상계의 존재, 양생은 현실계의 존재라 볼 수 있다. 양생과 여인이 만나 즐거움을 나누는 만복사는 환상계와 현실계의 존재가 교류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여인이 양생에게 이곳의 사흘이 인간 세계의 삼 년과 같다고 말하는 장면은,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의 질서가 다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이 곳(환상계)과 현실계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진술로 보아 현실세계와 환상계가 다른 질서로 이뤄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양생이 여인과 이별하고 인간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환상 세계에서 성취된 욕망이 현실 세계에까지 이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양생과 여인이 연인이 됨으로 환상계에서의 욕망이 성취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생에게 이별을 고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에서 이러한 욕망은 현실계에서 지속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⑤ 양생이 좋은 배필을 얻고자 했으나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현실 세계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양생의 소망은 좋은 여인(배필)을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가를 들지 못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는 현실세계에서 욕망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수능 국어와 교육', 읽다, 그리고 사유하다  
국어강사 심찬우